4주차 18세기와 창덕궁 · 창경궁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2차시	혜경궁 홍씨와 『한중록』 그리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학습 목표

- 조선시대 영·정조 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안녕하세요. 한국언어문화학술확산연구소 연구교수 김여주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영·정조 시기의 상황과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선의 궁궐인 창덕궁과 창경궁은 조선 후기 역사의 중심지였습니다. 이에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와 그곳에서 있었던 일을 살펴보면 조선 그리고 오늘날의 한국에 대해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덕궁과 창경궁은 모두 오늘날 기준으로 서울시 종로구에 있습니다. 그리고 두 궁궐은 서로 담을 맞대고 붙어있는데요, 지도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에 두 궁궐과 비원으로도 불리는 후원까지를 합쳐서 동쪽에 있는 궁궐이라는 뜻의 '동궐'이라고도 합니다.

조선시대 한양에는 총 다섯 개의 궁궐이 있는데요, 가장 중심이 되는 궁궐은 '경복궁'입니다. 그리고 그다음으로 큰 궁궐이 창덕궁입니다. 그런데 16세기 후반에 있었던 임진왜란이 한양에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임진'은 연도의 호칭이고, 1592년을 의미합니다. '왜'는 당시 일본을 뜻하는 말이고, '란'은 전쟁이라는 뜻입니다. 임진왜란은 조선 중기, 병자호란과 더불어 '양란'이라 꼽히는 큰 사건이습니다. 병자호란의 '병자'도 1636년이라는 년도를 의미하고, '호'는 청나라를 뜻합니다. 그리고 '란'은 전쟁입니다. 두 차례의 전쟁 모두 조선에 큰 피해를 주었지만 특히 임진왜란은 경복궁, 창경궁, 창덕궁이 모두 불타는 큰 화재를 불러옵니다. 이에 조선은 경복궁을 복원하는 것이 아니라 창덕궁을 복원하고 뒤이어 창경궁을 복원하여 지내게 됩니다. 경복궁은 이후 고종 4년인 1867년이 되어서야 재건되었기 때문에 1600년대부터 1800년대 중반까지 조선의 역사는 동궐이 주도했다고 보아야 합니다.

특히 조선을 1724년부터 1776년까지 다스린 제21대 왕 영조와 1776년부터 1800년까지 다스린 22대 왕 정조는 정치적으로 안정을 이뤄냈고 이로 인해 여러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영조와 정조는 정치 세력의 균형을 유지하는 인재 등용 시스템인 '탕평책'을 시행하여 국정 안정을 주도했습니다. 조선 후기에는 정치 집단인 '붕당'의 세력이 세지며 다른 당과의 갈등이 심화되어 그로 인한 폐해가 심각했습니다. 조선시대 행정부 최고 기관은 '의정부'인데요. 이곳의 가장 높은 직책이 '영의정, 좌의정, 우의정'이라 불리는 세 명의 정승, '삼정승'입니다. 이 자리

에 사람을 임명할 때, 영의정에 A당의 사람을 뽑았으면 좌의정에는 B당의 사람을 쓰는 방식으로 한쪽 당에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배치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탕평책'입니다. 또한 각 당파의 색을 강하게 드러내는 인재보다는 조금 더 화합을 말하는 사람을 임명합니다. 이러한 방식은 신하 개개인의 능력에 맞춘 인사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당파로 나뉘어 갈등이 심화되던 당시 상황에는 적합한 방식이었으며 이로 인해 당시 조선의 정치 갈등은 완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정치인을 어떠한 자리에 임명할 때 여러 당의 사람을 나누어 임용하는 방식을 '탕평 인사'라고 표현하는데 바로 여기에서부터 시작된 말입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설치해 실력 있는 인재를 등용하기도 했습니다. 규장각은 창덕궁 후원에 있는 건물의 이름이기도 합니다. 규장각의 '규장'은 임금이 쓴 글씨와 글을 말하는데, 이를 모아놓은 일종의 왕실도서관이라는 뜻입니다. 정조는 자신이 즉위한 해인 1776년 규장각을 세우고 학문, 정책을 연구하는 기관으로 사용합니다. 또한 정조는 규장각에 당파나 신분에 관계없이 능력 있는 사람을 모았고, 이 과정에서 '중인'이나 '서얼'을 등용하는 등 당시로서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여줍니다. 중인은 양반과 평민 사이에 위치한 신분으로 주로 기술직이나 사무직에 종사했습니다. 그리고 서얼은 서자와 얼자를 일컫는 말인데 양반의 자식 중 정실부인이 아닌 첩에게서 태어난 이들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아버지가 양반이었지만 어머니의 신분이 낮거나 정실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제대로 된 대접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한국의 고전소설 중 〈홍길동전〉의 주인공 '홍길동'이 바로 서얼인데요, 홍길동의 아버지는 양반이지만, 어머니가 노비 출신이었습니다. 이에 홍길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는" 신분이 됩니다. 홍길동과 같은 서얼들은 집에서도 차별받았지만, 능력이 있어도 관리가 되기 위한 시험인 과거 시험에 응시할 수 없었습니다. 정조는 실제 능력이 있는 중인과 서얼을 규장각에 불러 모았고, 청과 서양의 발전된 학문을 받아들였으며 학문을 꽃피웠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개혁정치 원동력으로 활용했습니다. 정조는 규장각을 정치적으로 독립된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높은 관직의 신하의 출입을 막고 규장각의 신하들이 학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전폭적으로 지지해 주었습니다. 1700년대에는 여러 조세 제도, 즉 세금에 대한 개혁도 있었는데요. 이를 통해 상업이 부흥하며 한양이 상업 도시로 발돋움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러한 일들의 중심지,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를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을 건국한 태조는 한양으로 수도를 정하고 경복궁을 짓습니다. 그런데 태조의 아들이자 조선의 2대 왕인 정종은 개경으로 수도를 옮기고자 합니다. 개경은 조선의 앞 왕조인 고려의 수도였으며, 오늘날의 이름은 개성으로 현재 북한에 위치합니다. 그런데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은 다시 한양으로 수도를 옮기고 창덕궁을 짓습니다. 이렇게 설명하니 세 명의 왕이 등장하고, 매우 오랜 시간인 것 같지만 실제로는 조선 건국 초기인 1394년부터 1405년까지, 10년 동안의 일입니다. 창경궁은 조선의 4대 왕인 세종이 자신에게 왕위를 물려주고 뒤로 물러나 있던 아버지 태종을 위

해 고려시대에 지어졌던 궁궐터 위에 '수강궁'을 세운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곳에 조선의 9대 왕인 성종은 여러 왕실의 어른을 모시기 위해 1483년 창경궁을 짓습니다.

경복궁이 조선 궁궐로서의 규칙을 반듯하게 지킨 건물이라면, 창덕궁과 창경궁은 이에 비해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조선시대 궁궐은 모두 아름답지만, 창덕궁과 그 후원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이에 창경궁과 후원의 가을을 감상할 수 있는 영상을 잠시 살펴보고 오겠습니다.

그런데 조선시대의 궁궐은 일제강점기가 되며 많은 아픔을 겪습니다. 특히 창경궁은 1911년 일제에 의해 '창경원'으로 격하되게 됩니다. 궁으로서의 지위를 잃은 것이지요. 일제는 창경궁 안에 있던 건물을 허물고 동물원과 식물원을 만들어 사람들이 놀러 다닐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종묘와 연결되었던 부분을 끊고 도로를 만드는 등 기존 궁궐의 모습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광복 이후에도 창경원의 동물원은 유지되었는데요, 1983년부터 동물원을 이전하고 궁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중입니다 창경궁이 겪은 일제강점기의 아픔을 잘 드러낸 영상이 있어 이 영상을 살펴보며 이번 시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문화재청
- e뮤지엄

2차시 혜경궁 홍씨와 『한중록』 그리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학습 목표

- 혜경궁 홍씨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통해 당시 왕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혜경궁 홍씨'를 함께 만나보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혜경궁 홍씨가 저술한 〈〈한중록〉〉과 혜경궁 홍씨를 위한 잔치의 기록인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살펴보며 그녀의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1735년에 태어나 1815년, 여든 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사도세자의 부인으로 궁에 들어와 영조, 정조, 순조 대를 산 인물입니다. 그렇다면 시아버지인 영조와 자신의 남편 사도세자의 갈등 과정과 남편의 죽음, 그리고 자신의 아들과 손자가 왕위에 오르는 것까지를 지켜본 것입니다.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정실부인으로 사도세자가 왕위에 올랐다면 왕비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도세자의 죽음으로 혜경궁 홍씨는 왕비가 되지 못했고, 세자빈으로 남아야 했습니다. 이는 혜경궁 홍씨가 정조의 어머니, 순조의 할머니임에도 정식으로 대비 혹은 왕대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에 정조는 '혜경궁'이라는 궁호 즉 '~궁'이라 불리는 호칭을 붙여줍니다.

2022년 방영한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영조의 딸인 화완옹주가 혜경궁 홍씨에게 너는 영원히 대비가 될 수 없다고 말하자 혜경궁 홍씨는 이를 인정합니다. "옹주 말대로 내가 대비는 되지 못합니다. 영원히. 일개 빈에 불과하지요."라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손은 그래도 배 아파 낳아준 어미이니 대접을 해주려 애쓰더군요, 훗날 이 어미에게 궁호를 내려주겠다 합니다. 궁호와 존칭까지 다 정해놓았더군요, 혜경궁 저하."라고 말합니다. 왕비가 아니기에 대비나 왕대비는 될 수 없지만, 분명 왕의 어머니이자 할머니였던 그녀를 대접해 주기 위한 아들 정조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리고 드라마에 나온 장면처럼 우리는 그녀를 '혜경궁 홍씨'라고 부릅니다.

혜경궁 홍씨는 시아버지 영조와 남편 사도세자의 갈등을 직접 목격한 인물입니다. 혜경궁 홍씨는 1744년, 만 9세의 나이로 같은 나이였던 사도세자와 혼인하며 세자빈에 책봉됩니

다. 그리고 1750년 첫 아이 의소세손을 낳았지만 어린 나이로 사망했고, 같은 해에 당시 왕의 손자, 즉 왕세손인 정조를 낳습니다.

조선의 제21대 국왕인 영조는 조선 27대 국왕 중 80대까지 산 가장 장수한 왕이며, 가장 오랜 기간, 51년간 집권한 왕입니다. 영조는 바로 앞선 왕인 20대 경종의 아들이 아닌 동생이며, 정식 왕비 출생이 아닌 숙종의 후궁 숙빈 최씨 사이에서 태어났습니다. 이 때문에 영조는 자신의 출신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많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정비인 정성왕후와는 자식이 없었고, 후궁인 정빈 이씨에게서 장남 효장세자를 얻었으나 이른 나이에 사망합니다.

그리고 영조의 나이 40이 넘었을 때, 다른 후궁인 영빈 이씨와의 관계에서 사도세자를 얻었습니다. 영조는 늦은 나이에 얻은 아들이니 얼마나 아꼈을까요? 영조는 사도세자가 태어난 지 1년, 한국에서는 이 첫 생일을 '돌'이라 합니다. 돌이 지나자 사도세자를 왕세자로 책봉했고, 자식 교육을 위해 애썼다고 합니다. 사도세자도 매우 총명했다고 합니다.

다만 사도세자는 성장 과정에서 여러 어려움을 겪었고, 대리청정을 하며 아버지 영조와의 관계가 점점 멀어집니다. '대리청정'은 왕이 여러 사정으로 인해 나라를 돌볼 수 없게 되면, 후계자가 왕 대신 일을 하는 제도입니다. 영조는 자신의 나이가 있으니 대리청정을 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실제로는 왕권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 이 때문에 아들의 권한을 잘 인정해주지 못했습니다.

결국 사도세자는 정신적으로 문제를 드러냅니다. 궁궐에서 일하는 내시와 나인을 살해하거나 고문했으며, 옷 입기를 어려워하는 강박장애가 있었다고 합니다. 이에 세자의 옷 입기를 도울 사람들이 없어지자 세자가 아꼈던 후궁인 경빈 박씨가 나섰으나 경빈 박씨를 때려죽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이러한 일화는 조선왕조의 정식 기록인 〈〈조선왕조실록〉〉에도 적혀있기는 하나, 사도세자의 사망 1년 정도 전부터 나타납니다.

이에 사도세자와 관련된 사건은 혜경궁 홍씨가 쓴 〈〈한중록〉〉(閑中錄)을 기본으로 합니다. 〈〈한중록〉〉의 뜻은 한가한 가운데에 쓴 글이라는 뜻인데, 〈〈한중록〉〉을 직접 필사하여 베끼는 방식의 필사본 중 '한'을 한가하다는 의미의 한(閑)이 아닌 한이 맺히다, 억울하다고 할 때의 한(恨)을 쓴 경우도 있습니다.

〈〈한중록〉〉은 크게 네 번 나누어 작성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아들인 정조가 왕위에 있는 동안 작성된 것으로 그녀의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의 삶에 대해 작성된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정조가 죽고 난 후 친정의 억울함에 대해 쓴 글입니다. 세 번째는 자신의 억울함을 손자인 순조에게 풀어달라고 요청하는 글입니다. 네 번째는 영조의 두 번째 정실부인인 정순왕후가 사망한 후 쓴 글인데 사도세자가 뒤주에 갇혀 사망한 사건을 자세히 다룹니다.

이렇게 보면 〈〈한중록〉〉은 사건 당시의 기록이라기보다는 상당한 시간이 지나 작성된 글입니다. 사도세자의 사망이 1762년이었는데, 정조가 왕위에 오른 것은 1776년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글은 정순왕후가 사망한 1804년 이후 작성된 것이니 사도세자의 사망과 관련된 내용을 40년 가까이 지난 다음에야 쓴 것입니다. 그런데도 오늘날의 정신과 의사가 분석하기에 사도세자의 증상이 매우 사실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중록〉〉의 기록은 조선시대에 커다란 비극인 사도세자의 죽음을 매우 생생하게 전달합니다.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와 영화에서 사도세자의 이야기를 자주 다룰 수 있는 요인 중 하나가 〈〈한중록〉〉에 남은 당시의 기록 덕분입니다. 〈〈한중록〉〉은 〈〈인현왕후전〉〉, 〈〈계축일기〉〉와 함께 조선의 궁중문학으로 손꼽히며, 왕실의 여성이 직접 썼다는 특징도 있습니다.

혜경궁 홍씨는 남편이 벌이는 기행을 지켜봤으며, 세자였던 남편이 시아버지에 의해 신분이 평민으로 강등당해 뒤주에 갇혀 죽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녀는 왕비가 될 수 없었으며, 아들인 정조도 사도세자의 아들이 아닌 일찍 세상을 떠난 큰아버지 효장세자의 아들로 호적을 바꾸어 왕위에 올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조와 순조는 자신의 어머니, 할머니인 혜경궁 홍씨를 지키기 위해 여러 노력을 합니다. 앞서 살펴본 '혜경궁 홍씨'라는 궁호도 이 일환입니다. 순조는 기사년, 1809년입니다. 이때 음력 1월 22일, 창경궁 경춘전에서 할머니 혜경궁의 입궁 60주년을 축하하는 행사를 치릅니다. 이때 순조는 혜경궁에게 '진표리'(進表裏) 의례를 열어드리는데, 혜경궁의 자애로움에 보답하고 장수를 기원하기 위해 새 옷감을 올리는 행사였습니다. 음력 2월 27일에는 왕실 인척이 모여 축하 잔치인 '진찬'(進饌)을 열었다고 합니다.

"관례(성인식) 회갑은 우리 왕실에 일찍이 전례가 없었던 예이다. 봄날의 햇살 같은 따스한 은혜를 갚고자 함은 자식의 지극한 정이요, 만수무강을 기원하면 작은 정성에서 절로 우러나는 것이다." 순조가 이 행사를 계획하며 한 말입니다.

혜경궁 홍씨는 사도세자의 부인이었기에 왕비나 왕의 부인은 아닙니다. 하지만 정조의 어머니이자 순조의 친할머니입니다. 이에 순조는 할머니가 관례를 올리며 궁에 들어온 사건의 '회갑'인 60주년을 챙겨드린 것입니다. 회갑은 '갑자'가 '다시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10간, 갑 / 을 / 병 / 정 / 무 / 기 / 경 / 신 / 임 / 계와

12지, 자 / 축 / 인 / 묘 / 진 / 사 / 오 / 미 / 신 / 유 / 술 / 해를 한 글자씩 결합하여 만든 60개의 간지가 있는데요, 이 간지는 매해에 하나씩 붙습니다. 간지의 첫 번째가 '갑자'이며, 다음 해는 '을축', '병인'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계유'년이 되면, 그다음 해는 '갑술', '을해', '병자'와 같이 나아갑니다. 갑자로 시작하여 계해까지, 총 60개의 간지가 있

는 것이죠.

순조가 기사년인 1809년에 혜경궁의 관례 회갑을 열었다고 하니 이전 기사년인 60년 전, 1749년에 혜경궁이 관례를 행했던 것이죠. 회갑, 혹은 환갑은 사람의 생일에 많이 쓰는 단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가장 최근의 기사년은 1989년이거든요. 이때에 태어난 사람은 2049년에 다시 기사년을 맞습니다. 이때가 1989년생의 환갑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행사에 사용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지금의 우리도 알 수 있는데요, 순조가 행사의 내용을 정리해서 의궤(儀軌)를 편찬했기 때문입니다. 의궤는 나라에서 큰 행사를 치르고는 후세를 위해 남긴 기록이며, 일의 처음부터 끝까지 경과를 자세히 기록한 문서입니다. 이 문서가 〈〈기사진표리진찬의궤〉〉입니다. 이 문서에는 행사의 준비와 진행 과정, 사용한 물품과 비용도 적혀있고, 섬세한 묘사와 선명한 색감이 남아있는 그림도 49면이나 있습니다. 이 의궤는 한국의 '외규장각'에 소장되어 있었으나 병인양요, 1866년의 사건입니다. 이때 프랑스로 건너갔고, 1891년 영국국립도서관이 이 의궤를 구입했습니다. 이 때문에 이 의궤의 현재 소장처도 영국국립도서관입니다.

얼마 전 서울시 용산구의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외규장각 의궤, 그 고귀함의 의미〉 전시를 했었는데요, 큰 전시실 전면에 혜경궁 홍씨를 위한 기사년의 잔치를 애니메이션으로 재현하여 상영했습니다. 오늘날 이 장면을 다시 만들어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기사진표리진찬의궤〉〉 덕분이었습니다.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학습 목표

-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조선 왕실의 비극인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조선 영·정조 시기는 정치적으로도 ⛪화적으로 매우 부흥했던 시기인데, 조선에서 유일하게 대를 건너 왕위를 잇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이 이야기는 한국에서도 매우 잘 알려져 있고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뤄집니다.

조선의 21대 왕은 영조입니다. 영조는 19대 왕인 숙종의 아들입니다. 숙종 또한 한국의 대중매체에서 자주 다뤄지는 왕인데요,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의 갈등을 중심으로 합니다. 한국 고전소설 중 김만중이 쓴 〈사씨남정기〉라는 작품이 있는데, 이 작품도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의 갈등을 바탕으로 쓴 소설이라고 널리 알려져 있으나 창작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이견이 있습니다.

현대의 한국 드라마에서는 주로 희빈 장씨를 주인공으로 하는데, 표에서 드라마와 영화의 제목에 '장희빈', 이는 희빈 장씨를 의미합니다. 이 들어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 혹은 영화는 기본적으로는 희빈 장씨가 악녀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데, SBS에서 2012년에 방영한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는 장희빈이 아닌 장희빈의 본명, 장옥정이 등장한 것만 봐도 알 수 있죠? 이 드라마는 희빈 장씨를 기존과 같은 악녀가 아닌 새로운 관점에서 재해석한 드라마입니다.

대중영화에서는 인현왕후와 희빈 장씨의 갈등을 부각하다 보니 숙종의 여성 관계가 복잡하다거나, 왕비와 후궁의 갈등을 방치한 것으로 그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숙종은 왕비와 후궁의 관계를 정치적으로 이용한 것이지 왕권이 약하거나, 여성을 탐닉했던 왕은 아닙니다.

숙종은 왕위 계승의 정통성에서 무엇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왕입니다. 효종-현종-숙종으로 왕위가 이어져 오며 현종과 숙종은 자신의 대에 남자 형제가 없었습니다. 유일한 왕위 계승자였던 것이죠. 또한 숙종은 아버지인 현종과 정실부인인 명성왕후 사이에서 태어난 아

들입니다. 왕비의 아들, 이를 '대군'이라고 하는데요, 숙종은 대군 출신입니다. 참고로 왕의 자식 중 왕비의 아들은 '-대군', 후궁의 아들은 '-군'이라 부릅니다. 왕비의 딸은 '-공주'이고요, 후궁의 딸은 '-옹주'라 부릅니다.

이렇듯 영조의 아버지 숙종은 왕권에 있어 위협받을 요소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숙종 이후의 상황은 조금 다릅니다. 숙종 다음의 왕위는 희빈 장씨의 아들인 경종이 잇습니다. 희빈 장씨는 후궁 출신으로 왕비의 자리까지 올랐으나, 앞서 왕비였던 인현왕후가 복귀하며 다시 후궁인 희빈으로 강등됩니다. 이후 희빈 장씨는 자신의 숙소 뒤편에 인현왕후를 저주하는 신당을 차렸다고 하며, 숙종은 희빈 장씨에게 자살을 명하고, 희빈 장씨가 이를 따랐다고 합니다. 이것만 해도 경종에게는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경종은 후사를 보지 못하고 왕위에 오른 지 4년 만에 사망했고, 경종의 동생이었던 영조가 왕위에 오릅니다.

영조는 왕의 아들이 아닌 동생으로 왕위에 오른 것입니다. 여기에 영조의 어머니는 숙종의 후궁이었던 숙빈 최씨였는데, 숙빈 최씨는 무수리 출신이었습니다. 무수리는 궁녀의 허드렛일을 하는 이로 신분이 매우 낮습니다. 후궁들은 양반가 출신부터 궁녀 등 다양한 출신이 있는데 그중에서도 영조의 어머니는 매우 낮은 신분이었던 것이죠. 〈장옥정, 사랑에 살다〉에서 숙빈 최씨는 인현왕후의 편을 드는 인물인데, 한글을 읽지 못하는 것으로 묘사됩니다. 2010년 MBC에서 방영한 〈동이〉는 숙빈 최씨를 주인공 동이로 그려낸 드라마입니다. 다만 숙빈 최씨에 대한 역사적 기록이 매우 적기에 〈동이〉는 상상이 아주 많이 반영된 드라마로 보아야 합니다.

이에 영조는 왕이었음에도 자신의 신분에 대해 콤플렉스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첫째 아들이었던 효장세자는 10살이 되지 못한 채 사망했고, 나이 마흔이 넘어 얻은 아들인 사도세자에게 거는 기대가 얼마나 컸을지는 짐작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사도세자는 자신의 부인인 혜경궁 홍씨가 남긴 〈〈한중록〉〉과 여러 역사서에서 볼 수 있듯 정신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1757년 6월에는 하루에 내시와 나인 6명을 살해하기도 했습니다.

사도세자가 남긴 글을 보면 사도세자 자신도 이를 인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 나는 원래 남모르는 울화의 증세가 있는 데다, 지금 또 더위를 먹은 가운데 임금을 모시고 나오니, (긴장돼) 열은 높고 울증은 극도로 달해 답답하기가 미칠 듯합니다. 이런 증세는 의관과 함께 말할 수 없습니다. 경이 우울증을 씻어 내는 약에 대해 익히 알고 있으니 약을 지어 남몰래 보내 주면 어떻겠습니까.

- 이번 알약을 복용한 지 이미 수일이 지났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습니다.

– 나는 한 가지 병이 깊어서 나을 기약이 없으니, 다만 마음을 가라앉히면서 민망해할 따름입니다

사도세자의 증세는 점점 심각해져 1761년 1월에는 자신의 옷 입기를 돕던 후궁 경빈 박씨를 때려죽이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사도세자의 폭력성은 날로 심해졌고 영조는 1762년, 결국 세자를 폐하고 서인(庶人)으로 신분을 강등시킵니다. 양반이나 왕비, 세자, 대군 등이 죄를 지었기에 그 신분과 지위를 박탈하여 피지배계층인 '서인'으로 신분을 내리는 조치를 '폐서인'이라 합니다. 그리고는 사도세자에게 자결, 즉 자살을 명합니다. 이때가 영조 38년, 1762년 윤5월 13일입니다.

하지만 사도세자는 이에 따르지 않았고, 영조는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둡니다. 뒤주는 곡식을 담아두는 가구로 크기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뒤주에 갇혀 있던 사도세자는 윤5월 21일에 사망합니다. 이 사건을 1762년인 임오년에 있었던 매우 심한 재액이라는 뜻의 '화변'이라 이름하여 '임오화변'이라고도 부릅니다. 영조는 사도세자가 사망한 후 그의 신분을 되돌려 주었고, '사도세자'라는 시호를 내립니다. 우리가 부르는 사도세자라는 명칭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미 이 보고를 들은 후이니, 어찌 30년에 가까운 부자간의 은의(恩義)를 생각하지 않겠는가? 세손(世孫)의 마음을 생각하고 대신(大臣)의 뜻을 헤아려 단지 그 호(號)를 회복하고, 겸하여 시호(諡號)를 사도세자(思悼世子)라 한다."

이때 정조는 영조의 손자인 '왕세손' 신분이었습니다. 정조는 아버지의 죽음 당시 만 10살이었고, 이 사건을 기억할 수 있는 나이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으로 인해 이른 나이에 사망한 영조의 맏아들이자 사도세자의 형 '효장세자'의 아들로 입양되어 '세자'가 됩니다. 이 이야기만 들어도 정조의 삶이 순탄치 않았을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임오화변과 그 시기에 일어났던 일을 창경궁의 공간을 중심으로 보여주는 영상이 있습니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조 38년 윤 5월, 창경궁에는 때아닌 못질 소리가 울려 퍼진다. 아들을 뒤주에 가둔 아비는 직접 자물쇠를 잠그고 못을 쳐 왕위를 이을 유일한 혈육을 자신의 손으로 죽이고 만다. 창경궁 문정전은 조선 왕조 최대의 비극 그 중심에 있었다. 조선왕조의 수많은 이야기를 품고 있는 곳, 창경궁 내전 전각중 하나인 환경전은 중종이 대장금의 진료를 받던 곳이었으며 지금은 없어진 자경전은 정조가 어머니 혜경궁 홍씨를 위해 지은 건물이었다. 또한 역대 왕들이 직접 농사 시범을 보이던 내농포도 창경궁에 있었다. 창경궁은 수많은 왕과 왕후들이 승하한 곳이자, 순조, 헌종, 정조 등이 탄생한 산실이기도 했다. 내전에 위치한 ㅁ자 형태의 독특한 전각인 집복헌. 후궁들의 처소로 사용되던 이곳은 조선 최대 비극의 주인공

인 사도세자가 태어난 곳이기도 하다.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으로 일종의 왕의 집무실이었다. 임금이 평상시 거처하며 일상적인 집무를 보거나, 신하들과 학문을 토론하는 '경연'을 여는 곳이었던 문정전. 그런데 영조는 문정전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죽은 첫째 왕비 정성왕후 서씨의 위패를 모셔놓은 혼전으로 삼은 후, 휘령전이라 이름 붙힌 것이다. 어느 날 문정전을 거닐던 영조는 죽은 정성왕후의 환청을 듣게 된다. 변란이 호흡사이에 달려있단 말은 역모가 가깝다는 뜻으로, 영조는 이를 듣고 사도세자를 떠올리게 된다.

【참고문헌】

- 공공누리
- 문화유산채널
- e뮤지엄
- MBC
- SBS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학습 목표

-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정조'와 '의빈 성씨'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는 한국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2007년에 방영했던 MBC 드라마 〈이산〉, 2021년에 방영한 MBC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두 사람의 이야기를 엿볼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럼 두 드라마의 주인공인 정조와 의빈 성씨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조는 조선의 제22대 왕입니다. 정조는 '묘호', 즉 왕이 죽은 후 살아있을 때의 공덕을 기리기 위해 올린 호칭입니다.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 불렸던 호칭은 아닌 거죠.

최근의 콘텐츠에서는 왕을 다룰 때 임금으로서의 면모보다는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왕의 모습을 부각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작품에서는 대개 왕의 이름으로 캐릭터를 구축합니다. 예를 들어 한글을 창제한 왕인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李祹)였거든요. 한국의 배우 한석규 님은 2011년 방영한 SBS 〈뿌리깊은 나무〉와 2019년 개봉한 영화 〈천문: 하늘에 묻는다〉 두 작품에서 모두 세종대왕 역을 맡았습니다. SBS 드라마 〈뿌리깊은 나무〉에서 세종대왕의 이름은 '이도'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해당 사극에서 이도는 백성을 사랑하고, 한글을 창제하는 등 기존에 이미 알려진 세종대왕의 업적도 보여주지만 거침없이 말하고, 때로는 욕도 하는 매우 인간적인 모습의 세종대왕을 보여줍니다. 〈천문: 하늘에 묻는다〉에서 배우 한석규의 배역명은 이도가 아닌 '세종'입니다. 앞선 〈뿌리깊은 나무〉보다 차분하고 진중한 역할이었습니다.

MBC 드라마 〈이산〉은 제목부터 '정조'가 아닌 '이산'(李祘)을 내세웠습니다. 정조의 이름은 '이산'인데 실제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이름을 막 부를 수는 없었겠죠? 조선시대에는 임금의 이름을 '휘'(諱)라고 하였으며, 임금의 이름을 피한다는 의미의 '피휘'(避諱)라는 말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전통은 동아시아에서 공유하고 있기도 합니다. 윗사람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면 예의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임금의 이름은 매우 어려운 한자를 사용하여 지었습니다. 임금의 이름이 들어간 한자 및 단어를 사용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이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도 드라마의 제목은 〈이산〉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정조도 '이산'으로 나오며, 어렸을 때 의빈 성씨와 처음 만나는 장면에서 자신을 '산'이라고 말합니다.

드라마에서 이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는 왕인 아들을 '주상'이라 부르며 높임말을 씁니다. 그런데 아들의 행복을 진심으로 바라는 어머니로 말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 단 한 문장, "산아, 행복해지렴"에서는 '산'이라는 이름을 불러줍니다.

두 드라마 모두 정조의 할아버지이자 바로 앞선 왕인 영조의 등장인물명은 '영조'이며, 다른 왕족은 본명 외의 호칭으로 되어있다는 점에서 정조만 본명인 '이산'으로 배역명을 사용하는 것은 분명 눈여겨볼 지점입니다. 제목과 등장인물 이름에서도 임금 정조의 개인사적인 영역에 집중함을 드러낸 것입니다.

의빈 성씨는 정조의 후궁입니다. 조선시대의 왕은 여러 부인을 둘 수 있었습니다. 그중 정실부인인 왕비는 단 한 명뿐입니다. tvN에서 2022년 방영한 〈슈룹〉이란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가상 역사물입니다. 실제 역사에는 이호라는 임금도, 성남대군이라는 대군도 없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인공인 배우 김혜수 님이 연기한 '임화령'은 정실부인인 왕비입니다. 왕비는 내명부(內命婦), 즉 궁중에 있는 왕비와 후궁, 궁녀를 관리하는 조직의 대표입니다. 때문에 〈슈룹〉에서는 여러 후궁과 모인 자리에서 임화령이 가운데 정중앙에 앉아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빈 성씨는 정조의 정식 왕비는 아니며, 후궁 중 한 명입니다. 후궁 중에서도 '빈'인 것인데, 앞에 붙은 '의'라는 빈 앞에 붙이는 호칭을 빈호로 받아 '의빈'이 된 것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 이산은 덕임에게 어울리는 글자를 찾아준 후 이 글자에 대해 설명해 줍니다. 그 글자가 바로 '의'(宜)입니다. 실제 역사에서 의빈 성씨의 빈호를 '의'로 내린 장면은 〈〈일성록〉〉이라는 왕의 일기에 남아있습니다. 〈〈일성록〉〉은 정조가 왕세손 시절부터 적기 시작한 것인데, 자신을 반성하는 자료로 삼기 위해 작성한 일기입니다. 정조가 쓰기 시작한 이 일기는 이후 왕까지 이어져 조선의 마지막 왕인 고종까지 작성했습니다.

정조의 〈〈일성록〉〉 중 1783년 2월 19일의 기록을 살펴보겠습니다. "하교하신 대로 소용궁(昭容宮)에게 올릴 빈호(嬪號)에 대한 일로 좌의정 이복원, 우의정 김익에게 가서 물으니, '철(哲) 자, 태(泰) 자, 유(裕) 자, 흥(興) 자, 수(綏) 자가 좋을 듯하나 감히 하나로 적시하여 대답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였습니다." 하여, 하교하기를, "의(宜) 자로 하라."라고 적혀 있습니다. 정조는 신하들에게 당시 소용궁이던 의빈 성씨에게 내릴 빈호를 묻고는 신하들이 가져온 다섯 글자 외에 자신이 정한 '의(宜)'를 빈호로 고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의빈 성씨의 빈호를 정하는 장면에 드라마적 상상력을 부여한 것이죠.

정조가 직접 빈호를 고를 만큼 아꼈던 의빈 성씨의 본명은 성덕임(成德任)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도 성덕임이라는 이름으로 나옵니다. 과거 〈이산〉이라는 드라마에서는 성송연이라는 이름으로 등장하지만, 이는 허구적 설정입니다.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가 오늘날의 대중문화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두 사람의 사랑 이야기가 매우 유명하기 때문입니다.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정조의 승은을 두 차례나 거절한 이야기, 두 번째는 의빈 성씨가 죽고 나서 정조가 남긴 〈어제의빈묘지명〉입니다.

의빈 성씨는 정조의 어머니인 혜경궁 홍씨의 가문과 연이 있어 혜경궁 홍씨가 거두어 길렀다고 전해집니다. 정조는 세자 시절인 1766년, 의빈 성씨에게 승은을 내리려 했으나, 의빈 성씨는 정조의 부인인 세자빈에게 아직 아이가 없어 승은을 받을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여기서 '승은'은 신하가 임금에게 받는 은혜를 뜻하는데요, 궁녀가 임금과 잠자리를 가진 후 후궁이 되는 것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15년쯤 지난 후 왕위에 오른 정조는 다시 의빈 성씨에게 승은을 내리려 합니다. 이때도 의빈 성씨는 정조의 승은을 거절했다고 하는데, 정조가 의빈의 하인에게 벌을 내리고 나서야 승은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의빈 성씨는 정조의 왕비인 효의왕후와도 친분이 깊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의빈 성씨는 효의왕후가 자식을 낳지 못했으니 후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던 것이죠. 다만, 효의왕후는 정조와 사이가 좋았음에도 자녀를 보지 못했습니다. 의빈 성씨는 1753년생인데요, 정조의 첫 번째 승은을 받을 때는 10대 중반이었지만, 두 번째 승은을 받아들인 것은 한국 나이로 서른 살이 되었을 때입니다. 당시가 조선시대임을 감안하면 매우 늦은 나이에 후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의빈 성씨는 1782년 아들인 문효세자를 출산했고, 1784년에는 딸을 출산했습니다. 하지만 문효세자는 홍역으로 이른 나이에 사망했고, 딸도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망했습니다. 그리고 의빈 성씨는 아들이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임신한 상태로 사망합니다.

15년 동안 정조의 승은을 거절했고 받아들인 지 4년이 채 되지 않아 사망한 것이죠. 그 기간 동안 세 번의 임신을 겪었고, 태어난 자녀를 모두 잃기도 했습니다. 의빈 성씨의 정확한 사인은 알 수 없어 그녀의 죽음에는 여러 설이 있기도 합니다. 정조는 의빈 성씨의 죽음을 매우 슬퍼했습니다.

정조가 쓴 의빈 성씨의 묘지명인 〈어제의빈묘지명〉에는 정조의 애틋한 마음이 드러납니다. 조선에서 배우자를 위한 비석의 문장을 쓰는 것은 흔치 않은 일입니다. 그런데도 정조는 죽은 의빈 성씨를 위해 꽤나 긴 글을 지었고, 자신이 내린 승은을 거절했다는 일화까지 상세히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빈을 후궁 반열에 둔지 20년"이라는 언급이 있는데, 이는 첫 번째 승은을 내린 그 시점부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빈 성씨의 성품에 대해서

도 말을 남겼습니다. “빈의 출신은 가난하고 지체가 변변치 못하여 스승에게 배우지 못하고 후궁이 되었지만 학문을 배우지 않아도 알았다. 내전, 여기서는 효의왕후를 말합니다. 내전을 위해 힘과 마음과 정성을 다한 것은 땅이 마땅히 알고 금석도 가히 뚫을 수 있을 것이다.”

이 외에도 의빈 성씨를 위해 제문을 써 〈어제의빈치제제문〉이 남아있고, 제사 때마다 지은 〈어제제축문〉도 남아있습니다.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에서는 이산이 덕임이가 죽은 후 그녀에 대해 어떠한 언급도 하지 않다가 덕임이의 벗인 경희를 만나 감정을 터뜨립니다. 그때 돼서야 “내 빈이다, 내 사람이다. 아무리 세월이 흘렀어도 내 것이고, 절대 다른 누구에게도 내어주지 않아”라며 덕임이를 잊지 않았음을 드러냅니다. 〈옷소매 붉은 끝동〉의 마지막 회에서는 이산이 사망하자 두 사람이 젊은 날에 만났던 공간에서 이산을 기다리는 덕임이와 재회하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서울시 용산구 효창동에는 ‘효창공원’이 있습니다. 효창공원은 의빈 성씨와 문효세자의 무덤이 있던 곳입니다. 정조는 한양도성 가까이에 두 사람의 무덤을 두고, 효성스럽고 번성하라는 뜻의 효창(孝昌)이라는 이름을 내립니다. 이곳은 일제강점기에 유원지로 개발되었으며, 의빈 성씨와 문효세자의 무덤은 경기도 고양시의 서삼릉으로 이장되었습니다. 지금은 효창공원에는 독립유공자인 백범 김구의 묘소와 이봉창, 윤봉길, 백정기 의사의 묘소가 있습니다. 또 다른 쪽에는 임시정부에서 일한 이동녕, 조성환, 차이석의 묘소가 조성되어 있기도 합니다.

【참고문헌】

- 공공누리
- 전통문화포털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 MBC
- SBS
- tvN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학습 목표

- 오늘날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의 아름다움에 대해 함께 감상해 보겠습니다. 조선에는 경복궁, 경운궁, 덕수궁이라고도 합니다. 경희궁, 창덕궁, 창경궁 이렇게 5개의 궁궐이 있었는데요. 창덕궁과 창경궁은 나란히 붙어있습니다. 이 지도에서도 위치를 살펴볼 수 있죠? 조선의 궁궐은 모두 아름답지만 창덕궁과 창경궁, 후원으로 이루어진 동궐 영역은 특히 아름답습니다. 창

덕궁은 앞서 소개한 다섯 개의 궁궐 중 유일하게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된 궁궐입니다. 돈화문-금천교-궐내각사-인정전-선정전-희정당-대조전-낙선재로 이어지는 경로로 창덕궁을 관람할 수 있는데, 한 시간 정도면 모두 돌아볼 수 있습니다.

돈화문은 창덕궁의 정문입니다. 2층 구조로 되어있는데, 궁궐 대문 중 가장 큰 규모입니다. 1412년, 조선의 3대 왕인 태종이 건립했으며 임진왜란 때 모두 불탔다가 1609년에 다시 세웠습니다. 돈화문을 세울 당시에는 종묘가 앞에 있어 궁의 진입로를 궁궐의 남서쪽으로 잡았다고 합니다.

궐내각사는 왕과 왕실을 보좌하는 궐내 관청으로 왕을 가까이에서 모시는 여러 관청이 모여있어 매우 복잡한 구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조선시대에 지은 건물은 아니며, 일제시대에 헐렸던 것을 2000년대 초반 복원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금천교입니다. 금천교는 창덕궁의 명당수인 금천(禁川) 위에 세운 다리입니다. 1411년, 태종이 설치했으며 만들었을 때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에 남아있는 가장 오래된 돌다리이기도 합니다.

인정전은 창덕궁의 중심 건물입니다. 국가의 중요한 의식, 예를 들어 왕의 즉위식이나 신하들의 하례, 외국 사신 접견 등을 행하던 곳입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2층짜리 건물이지만, 실제 내부는 단층 건물입니다. 1405년 태종이 지었고,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10년, 1803년 복원한 것입니다. 또한 전등, 커튼, 유리 창문, 바닥의 마루 등은 1908년 서양식

으로 개조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선정전은 왕의 집무실로 쓰이던 곳입니다. 임진왜란 때 불탄 것을 1647년 인조가 다시 세운 것이며, 궁궐에 남아있는 유일한 청색 기와의 건물입니다. 희정당은 원래 임금이 잠에 드는 침전이었으나 편전, 즉 임금이 평상시에 생활하는 공간으로 바뀌어 사용되었습니다.

지금의 희정당은 1917년 불에 탄 것을 1920년에 복구하면서 경복궁에 있는 강녕전을 옮겨온 것입니다. 따라서 원래의 희정당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지금의 희정당 내부는 1920년에 복구하면서 서양식으로 꾸며놓은 것입니다.

대조전은 창덕궁의 정식 침전으로 왕비의 생활공간이었습니다.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1917년 불에 탄 것을 1920년 복구하면서 경복궁의 침전인 교태전을 옮겨서 지은 것입니다. 희정당과 마찬가지로 내부는 서양식으로 되어있습니다.

낙선재는 헌종이 지은 건물로 헌종의 서재 겸 사랑채였습니다. 헌종은 후궁 경빈 김씨를 위해 건물을 지으며 함께 낙선재를 지었습니다. 낙선재는 궁궐 내에 있지만 단청을 하지 않아 소박한 모습이며, 1945년 해방 이후에도 왕족이 머무른 공간입니다. 그리고 창덕궁의 후원은 한국의 대표적인 전통 정원을 보여주는데, 자연 지형을 살리고 꽃과 나무를 심었으며 연못을 조성한 후 건물을 배치했습니다. 그럼 후원의 모습을 담은 영상을 함께 살펴볼까요?

이어 창경궁의 주요 건물도 살펴보겠습니다. 홍화문은 창경궁의 정문입니다. 1484년 성종 때 세워졌는데, 임진왜란 때 불탔다가 1616년 다시 세워졌습니다. 창덕궁의 정문인 돈화문과 마찬가지로 2층 형태의 누각입니다.

다음으로 명정전입니다. 명정전은 창경궁의 중심 건물로 창덕궁의 인정전과 같은 기능을 합니다. 국가의 공식적인 행사가 진행되었던 곳입니다. 다음으로 문정전은 창경궁의 편전이자 집무실이었습니다. 창경궁의 홍화문과 명정전, 그러니까 메인 건물은 동향인데 문정전은 남향으로 되어있어 명정전과 서로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이는 다른 궁궐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특성입니다.

숭문당과 함인정은 임금과 신하가 함께 정치와 학문을 논의하던 곳입니다. 숭문당은 광해군 때 세워진 것으로 추측되며, 1830년 불에 탄 것을 그해 가을 다시 지었습니다. 영조의 친필현판이 남아있는 건물이기도 합니다. 함인정은 숭문 앞에 있는 건물로 1633년 세워진 정자입니다.

경춘전과 환경전, 통명전, 양화당은 침전으로 사용된 건물입니다. 경춘전은 대비, 왕비,

세자빈이 많이 사용하였으며 환경전은 왕이나 세자가 사용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통명전은 왕비의 침전으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양화당은 내전의 접대공간으로 활용되었습니다. 지금 말한 건물은 모두 1834년에 다시 지은 것입니다.

영춘헌은 후궁의 처소로 주로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집복헌에서는 사도세자와 순조가 태어나기도 했고요. 그 외에 궁궐 여성들의 처소가 모여있던 공간도 있지만, 일제에 의해 모든 건물이 사라져 터만 남아있습니다. 창경궁에는 춘당지라는 연못도 있는데, 조선왕조 때부터 있었던 것은 현재 있는 연못의 매우 작은 부분입니다. 연못의 넓은 부분은 일제가 연못을 확장한 것이고, 원래는 임금이 농사를 짓는 논이었습니다. 임금님이 직접 농사를 짓는다는 것이 놀랍죠? 이는 국가 기반 산업이 농업을 조선에서 왕과 왕비가 직접 행하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농사가 잘되는 것도 기원하고, 농사를 주재하는 상징성도 보여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관덕정은 활을 쏘는 정자입니다. 1642년에 지은 건물인데 앞쪽의 넓은 터는 군사 훈련장과 무과 시험장으로 쓰였다고 합니다. 풍경도 매우 아름답죠? 단풍의 아름다움을 읊은 시도 많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창경궁과 창덕궁은 굉장히 아름다운 공간이며 산책하기에도 매우 좋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면 꼭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창덕궁관리소
- 한국관광공사

Lecture

4주차 18세기와 창덕궁 · 창경궁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2차시	혜경궁 홍씨와 『한중록』 그리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학습 목표

- 조선시대 영·정조 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Hello. I am Kim Yujoo, a research professor at the Korean Language and Culture Academic Dissemination Institute.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situation during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and the history of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were the centers of the late Joseon Dynasty. By examining the history of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and the events that took place there, we can better understand both the Joseon Dynasty and modern-day Korea.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are both located in present-day Jongno-gu, Seoul. A map of the overall complex shows that the two palaces are adjacent to each other, with their walls facing one another. Because of this, the two palaces and the rear garden, also known as Biwon, are collectively referred to as 'Donggwol,' meaning the eastern palaces.

There were a total of five palaces in Hanyang, the capital of the Joseon Dynasty, with Gyeongbokgung being the most central palace. The next largest palace is Changdeokgung. However, the Japanese invasion of Joseon, known as the ‘Imjin War’, in the late 16th century caused significant damage to Hanyang. 'Imjin' refers to the name of the year, meaning 1592 in this case. 'Wae' refers to Japan at that time, while 'ran' means ‘war’. The Imjin War, along with the Byeongja Horan (Manchu Invasion), are together considered two of the major incidents, or 'Yangran', of the mid-Joseon period. 'Byeongja' in Byeongja Horan refers to the year 1636, 'ho' means the Qing Dynasty, and 'ran' means war. Both wars caused great damage to Joseon, but this was

especially true of the Imjin War, in which Gyeongbokgung, Changgyeonggung, and Changdeokgung were all heavily damaged by fire. In response, Joseon restored Changdeokgung, rather than Gyeongbokgung, and later restored Changgyeonggung. Gyeongbokgung was not rebuilt until 1867, the fourth year of King Gojong, so the history of Joseon from the 1600s to the mid-1800s was dominated by the ‘Donggwol’.

Yeongjo, the 21st king of Joseon who ruled from 1724 to 1776, and Jeongjo, the 22nd king of Joseon who ruled from 1776 to 1800, achieved political stability and thereby greatly developed Joseon culture. Yeongjo and Jeongjo implemented a merit-based appointment system called the 'Tangpyeong Policy' in order to maintain the balance of political forces and lead a stable nation. In the late Joseon period, the power of political groups called 'bungdang' grew, and conflicts with other parties intensified, causing serious harm. The highest institution of the Joseon administration was the 'Uijeongbu.' The highest positions were the three ministerial posts called 'Yeonguijeong, Jwauijeong, Uuijeong,' collectively known as 'Samjeongseung.' When appointing people to these positions, the 'Tangpyeong Policy' involved placing the person from ‘Party A’ in the Yeonguijeong position and the person from ‘Party B’ in the Jwauijeong position, so that one party would not dominate, creating a system of mutual restraint. It also appointed people who spoke more about harmony rather than those who showed strong partisanship. Although is difficult to see this as a personnel appointment system based on the individual abilities of the officials, it was an appropriate method at a time when conflicts were intensifying due to the divisions of factionalism, and as a result, the trend at the time showed that political conflicts in Joseon were easing. Today in Korea, when politicians are appointed to any position, the practice of appointing people from different parties is called 'Tangpyeong Personnel,' which originated from this policy.

Jeongjo also established the 'Kyujanggak' to appoint talented individuals. 'Kyujanggak' is also the name of a building in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The term ‘Kyujang’ in ‘Kyujanggak’ refers to the writings and documents written by the king, and it serves as a royal library where these documents are collected. In 1776, the year he ascended to the

throne, King Jeongjo established Kyujanggak and used it as an institution for researching Hanmun and policy. Additionally, Jeongjo gathered capable people in Kyujanggak regardless of their party affiliation or social status, and in this process, he took groundbreaking measures for the time, such as appointing 'Jungin'' and 'Seo-ol'. Jungin refers to people of intermediate status between the yangban (nobility) and the common people, who were mainly engaged in technical or bureaucratic occupations. Seo-ol is a term that refers to the children of the yangban who were born to concubines rather than to the legal wives of the yangban. Although their fathers were yangban, these children could not receive proper treatment because their mothers had low social status or were not lawfully wedded.

Hong Gildong, the protagonist of a classic Korean novel, 〈The Story of Hong Gildong〉, is an example of a Seo-ol. Hong Gildong's father was a yangban, but his mother was of slave origin. Consequently, Hong Gildong's status meant that he "cannot call his father 'father' and cannot call his brother 'brother'." Seo-ol, like Hong Gildong, were not only discriminated against at home, but they were also not allowed to take the Kwago, the examination required to become a government official, even if they had the ability. King Jeongjo gathered capable jungin and seo-ol at Kyujunggak, embraced advanced science from China and the West, and not only fostered scholarship but also utilized it as a driving force for his reform policies. In order to make Kyunjunggak a politically independent space, Jeongjo prevented high-ranking officials from entering and fully supported the ministers of Kyujanggak so they could focus solely on their studies. In the 1700s, there were also various tax reforms, which led to the revival of commerce and the rise of Hanyang as a commercial city.

Now, let's look at the history of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the centers of these events. Taejo, the founder of Joseon, established Hanyang as the capital and built Gyeongbokgung Palace. However, his son and the second king of Joseon, Jeongjong, intended to move the capital to Gaegyeong. Gaegyeong was the capital of the former dynasty of Joseon, Goryeo, and its current name is Kaesong, which is located in North Korea today. However, the third king of Joseon, Taejong, moved the capital back to Hanyang and built

Changdeokgung Palace. Explaining it in this way might make it seem like a very long time since three kings are mentioned, but in reality, this series of events took place between 1394, the founding of Joseon, and 1405, a period spanning 10 years. Changgyeonggung began with Sejong, the fourth king of Joseon, building "Suganggung" on the site of a palace from the Goryeo era for his father, Taejong, who had stepped down and passed the throne to him. In 1483, Seongjong, the ninth king of Joseon, built Changgyeonggung to accommodate various royal elders.

If Gyeongbokgung Palace strictly adheres to the rules of Joseon palaces,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are comparatively more natural. All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are beautiful, but Changdeokgung and its rear garden are especially beautiful. Now, let's take a brief look at a video showing the beauty of Changgyeonggung and its garden in autumn.

However, the palaces of the Joseon Dynasty suffered greatly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In particular, Changgyeonggung was demoted to "Changgyeongwon" in 1911 due to the Japanese rule, losing its status as a palace. The Japanese demolished the buildings inside Changgyeonggung and turned it into a zoo and botanical garden for people to enjoy. They also cut off the connection with Jongmyo and built a road, altering the appearance of the original palace. Even after the liberation, the zoo at Changgyeongwon remained, and in 1983, efforts were made to relocate the zoo and restore the palace. There is a video that well illustrates the pain Changgyeonggung experienc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Let's take a look at this video and wrap up our time today.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문화재청
- e뮤지엄

2차시 혜경궁 홍씨와 『한중록』 그리고 『기사진표리진찬의궤』

학습 목표

- 혜경궁 홍씨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통해 당시 왕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meet Lady Hyegyeong (Hyegyeong-gung Hong Ssi). During this session, we will take a look at “The Memoirs of Lady Hygyeong” ("Han Jung-rok") written by Lady Hyegyeong herself, as well as the "Gisajinpyorijinchanuigwe" (Royal Record of the Presentation Ceremony and Banquet in the Gisa year”) the record of the feast held for Lady Hyegyeong, as we spend time reflecting on her life.

Lady Hyegyeong was born in 1735 and passed away in 1815 at the age of eighty. She entered the palace as the wife of Crown Prince Sado, and lived through the reigns of King Yeongjo, King Jeongjo, and King Sunjo. This means she witnessed the conflict between her father-in-law, King Yeongjo, and her husband, Crown Prince Sado, as well as her husband's death, and the ascension of her son and grandson to the throne.

Lady Hyegyeong would have become the queen consort if Crown Prince Sado had ascended to the throne as she was his lawful wife. However, due to Crown Prince Sado's death, Lady Hyegyeong was unable to become queen consort and had to remain the crown princess consort. This means that despite being the mother of King Jeongjo and the grandmother of King Sunjo, she could not officially become the queen dowager or the royal queen dowager. In response, King Jeongjo granted her the palace title "Hyegyeong-gung," which is a title ending with "~gung" (“~palace”).

In the 2022 drama "The Red Sleeve", Princess Hwawan, the daughter of King Yeongjo, tells Lady Hyegyeong that she can never become queen

dowager, which Lady Hyegyeong accepts. "As the princess says, I can never become the queen dowager. Never. I am just a mere consort," she says. And then she adds, "But at least my grandson tries to treat me well because I am the mother who gave birth to him in pain. He says he will grant me a palace title someday. He has already decided on the palace title and honorific, 'Hyegyeonggung.'" Although she couldn't become the queen dowager or the royal queen dowager since she was not the queen consort, it was clearly an idea from her son King Jeongjo to treat his mother, and the grandmother of his children, with respect. And as shown in the drama, we call her "Hyegyeong-gung Hong Ssi."

Lady Hyegyeong personally witnessed the conflict between her father-in-law King Yeongjo and her husband Crown Prince Sado. Lady Hyegyeong married Crown Prince Sado, who was the same age as her, at the age of 9 in 1744 and was appointed as Crown Princess Consort. In 1750, she gave birth to her first child, Prince Uiso, who died at a young age, and later that same year, she gave birth to the king's eldest grandson, Jeongjo.

Living into his 80s, King Yeongjo, the 21st ruler of the Joseon Dynasty, lived the longest life among the 27 kings of Joseon, and was Joseon's longest-reigning king, ruling for 51 years. King Yeongjo was not the son of the previous king, the 20th ruler of Joseon King Gyeongjong, but his younger brother, and was born to the royal concubine Sukbin Choi, who was not the official wife and queen consort of King Sukjong. Because of this, it is said that Yeongjo experienced a great deal of strain due to his background.

In addition, King Yeongjo had no children with his first wife, Queen Jeongseong, though his first son, Prince Hyojang, was born to the royal concubine, Jeongbin Lee. However, Prince Hyojang died at an early age. When Yeongjo was over 40 years old, his second son, Crown Prince Sado was born to another royal concubine, Youngbin Lee. How much would Yeongjo have cherished his son, who was born at such a late age? One year after Crown Prince Sado was born, which is called "dol" (first birthday) in Korea, Yeongjo appointed him as the crown prince and made efforts to educate his child. It is said that Crown Prince Sado was very intelligent.

However, Crown Prince Sado faced various difficulties as he got older, and his relationship with his father, King Yeongjo, became distant as Sado became the crown prince regent. “Regency" is a position and title in which the heir to the throne takes care of the country's affairs on behalf of the king when the king cannot do so due to various circumstances. King Yeongjo wanted Sado to assume regency because of his age, but in reality, he still had a desire for royal authority and did not properly acknowledge his son's authority.

Eventually, Crown Prince Sado began to show mental issues. He killed or tortured eunuchs and court ladies working in the palace, and it is said that he had an obsessive-compulsive disorder that made it difficult for him to wear clothes. When there were no more people to help the crown prince with his clothes, his cherished royal concubine, Gyeongbin Park, stepped in, but he ended up beating her to death as well. These incidents involving Crown Prince Sado are recorded in the official chronicles of the Joseon Dynasty, the "Annals of the Joseon Dynasty" (Chosonwangjosillyok) but they mainly appear from about a year before his death.

The primary source for incidents related to Crown Prince Sado is Lady Hyegyeong's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Han Jung-rok”). "Han Jung-rok" means “writings done during one’s leisure time”. However, in some transcriptions of the memoirs, the character ‘han' (閑), meaning ‘leisurely’, is replaced with ‘han' (恨), meaning ‘resentment or bitterness’.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is divided into four parts. The first part was written during the reign of her son, King Jeongjo, and covers her life from her childhood up to the time of writing. The second part was written after the death of King Jeongjo, and it addresses the grievances of her birth family. The third part is a request for her grandson, King Sunjo, to redress the injustices she has suffered. The fourth part was written after the death of Yeongjo's second wife, Queen Jeongsun, and it elaborates on the incident where Crown Prince Sado was confined in a rice chest and died.

When looked at in this way,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was written considerably later than the actual events. Crown Prince Sado's death occurred

in 1762, while King Jeongjo ascended the throne in 1776. The final fourth part was written after the death of Queen Jeongsun in 1804, meaning the account of Crown Prince Sado's death was written almost 40 years later. Despite this, modern psychiatrists have evaluated Crown Prince Sado's symptoms as being very realistic.

The account in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vividly conveys the tragic death of Crown Prince Sado, a major tragedy of the Joseon era. One of the reasons Korean television dramas and movies are able to cover the story of Crown Prince Sado, which they do often, is due to the records preserved in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is considered part of Joseon's palace literature, along with ”The Tales of Queen Inhyeong” (“Inhyeon Wanghujeon”) and “Diary of the Year Gyechuk” (“Gyechuk Ilgi”), and is notable for being written by a woman of the royal family.

Lady Hyegyeong watched her husband's misdeeds and not only witnessed his being demoted from crown prince to commoner by his father, but also his death when he was confined in a rice chest. She could not become queen consort, and her son, King Jeongjo, ascended to the throne not as Crown Prince Sado's son but as the son of his deceased uncle, Crown Prince Hyojang, changing his family register.

In this situation, Kings Jeongjo and Sunjo made various efforts to protect their mother and grandmother, Lady Hyegyeong. The aforementioned palace title, " Hyegyeong-gung Hong Ssi," is part of this effort. It was 1809, during King Sunjo's reign. At that time, on the 22nd day of the first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 celebration was held at Changgyeonggung Palace's Gyeongchunjeon Hall to commemorate the 60th anniversary of Lady Hyegyeong's entry into the palace. At that time, King Sunjo held a 'jinpyori' ceremony for Lady Hyegyeong, a ceremony where new clothes were presented to her to repay her kindness and pray for her longevity. On the 27th day of the second month of the lunar calendar, a congratulatory banquet called a 'jinchan' was held with royal relatives in attendance.

"There was no precedent for celebrating the 60th anniversary (hwegap) of a coming-of-age ceremony in our royal family. We want to repay her warm

grace, like the spring sunlight, a marker of the utmost affection from her children. Wishing for longevity and good health naturally arises from our small sincerity," said King Sunjo while planning the event.

As she was the wife of Crown Prince Sado, Lady Hyegyeong was not the queen or wife of the king. However, she was the mother of King Jeongjo and the maternal grandmother of King Sunjo. So, King Sunjo commemorated the 60th anniversary (‘hwegap’) of his grandmother's coming-of-age ceremony, and her entry into the palace, a significant milestone. 'Hwegap' means 'the return of the first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gapja').

The respective combination one of the 10 heavenly stems, gap-갑 / eul-을 / byeong-병 / jeong-정 / mu-무 / gi-기 / gyeong-경 / sin-신 / im-임 / gye-계;

and one of the 12 earthly branches, ja-자 / chuk-축 / in-인 / myo-묘 / jin-진 / sa-사 / oh-오 / mi-미 / sin-신 / yu-유 / sul-술 / hae-해 creates 60 heavenly stem-branch combinations. These combinations are assigned to a year. The first combination is 'gapja' (갑자), followed by 'eulchuk' (을축), 'byeongin' (병인), and so on. After the tenth combination, the 'gyeyu' (계유) year, the next years continue with 'gapsul' (감술), 'eulhae' (을해), 'byeongja' (병자), and so on. The 60 heavenly stem-branch combinations begin with 'gapja' and end with 'gyesul.'

Since King Sunjo held Lady Hyegyeong's ‘hwegap’ in 1809, she must have held her coming-of-age ceremony 60 years prior in the previous ‘gisa’ year (or the sixth year of the sexagenary cycle) in 1749. 'Hwegap,' or 'hwankap,' is often used in the context of a person's birthday. For example, the most recent ‘gisa’ year was 1989.

People born in that year will meet their next ‘gisa’ year in 2049, which is their ‘hwegap’. We still know about all the details of the event held at that time because King Sunjo compiled an 'uigwe' which documented the event. ‘Uigwe’ is a royal record left for posterity after major events in the country, detailing the entire process from beginning to end. This document is the "Gisajinpyorijinchanuigwe". It includes the preparations and the unfolding of the event, the materials used, and the costs incurred, as well as 49 pages of

vivid and delicately described illustrations. This uigwe was once housed in Korea's 'Oegyujanggak' (Royal Library) but was lost during the Byeongin Yangyo incident (French Expedition to Korea) in 1866. At that time, it was taken to France, and in 1891, the British Library purchased the uigwe. This is why the current location of the uigwe is the British Library.

Not long ago,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in Yongsan-gu, Seoul, held an exhibition called "The Uigwe of Oegyujanggak: The Meaning of Its Nobility". In a large exhibition hall, they screened an animation that recreated the feast for Lady Hyegyeonggung Hong during the Gisa year. The ability to recreate this scene today is all thanks to the "Gisajinpyorijinchanuigwe".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학습 목표

-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examine the tragic death of Crown Prince Sado. The reigns of King Yeongjo and King Jeongjo were, politically and culturally, very prosperous periods in Joseon history, but during this time, there was a unique incident in which the throne was passed on to a non-direct descendant. This story is very well known in Korea and is often covered in popular media.

The 21st king of Joseon was Yeongjo. Yeongjo was the son of the 19th king, Sukjong. Sukjong is also a king frequently portrayed in Korean popular media, which mainly focuses on the conflict between Queen Inhyeon and Consort Jang Heebin. There is a classic Korean novel called "Sassi Namjeonggi" ("Record of Lady Sa's Southward Journey"), written by Kim Man-jung, which is widely known to be based on the conflict between Queen Inhyeon and Consort Jang Heebin. However, there are various different takes on the period that the novel depicts.

In modern Korean dramas, the main character is usually Consort Jang Heebin. You can see that the titles of dramas and movies contain 'Jang Heebin', which refers to Consort Jang Heebin. These dramas or movies typically portray Consort Jang Heebin as a villain. However, in 〈Jang Ok-Jung, Living by Love〉, an SBS drama aired in 2012, you can see that the title features not 'Jang Heebin', but her real name, Jang Ok-Jung. This drama doesn't portray Consort Jang Heebin as a villain as previous dramas have, but rather, reinterprets her from a new perspective.

In popular movies, the conflict between Queen Inhyeon and Consort Jang

Heebin is often emphasized, and thus these dramas tend to focus on King Sukjong's complicated relationships with women or the neglect of conflicts between the queen and the concubines. However, Sukjong was not a weak ruler, nor was he a king who indulged in women.

He merely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queen and the concubines for political purposes. The throne was passed down from King Hyojong to King Hyeonjong and then to King Sukjong, and both Hyeonjong and Sukjong had no male siblings in their respective generations. They were the only heirs to the throne. Sukjong was born the son of King Hyeonjong, and his lawful wife, Queen Myeongseong. The son of the queen is called 'Daegun,' so Sukjong was born with the title 'Daegun'. For reference, the son of a queen is given the title '-Daegun,' while the son of a concubine is called '-Gun.' The daughter of a queen is called '-Gongju,' while the daughter of a concubine is called '-Ongju.'

As such, Sukjong, the father of King Yeongjo, had no factors that threatened his royal authority. However, the situation after Sukjong was slightly different. After Sukjong, the throne was succeeded by King Gyeongjong, the son of Consort Jang Heebin. Consort Jang Heebin, originally from the concubines, rose to the position of queen consort, but was demoted back to a concubine after the previous Queen Inhyeon was reinstated. Consequently, it is said that Consort Jang Heebin set up a shrine behind her quarters to curse Queen Inhyeon, and Sukjong ordered her to commit suicide, which she did. This alone would have been a significant burden for Gyeongjong. However, Gyeongjong died only four years after ascending to the throne without leaving an heir, and his younger brother, Yeongjo, succeeded the throne.

Yeongjo was not a king's son but a sibling who ascended the throne. Furthermore, Yeongjo's mother was Consort Sukbin Choi, one of Sukjong's concubines, who came from a very low social class known as "Musuri," who performed odd chores for the ladies of the court. Concubines came from various backgrounds, ranging from noble Yangban families to court ladies, and among them, Yeongjo's mother was from one of the lowest social strata. In the drama "Jang Ok-Jung, Living by Love", Consort Sukbin Choi is portrayed

as a character who supports Queen Inhyeon and is unable to read Korean. In 2010, MBC aired a drama called “Dong Yi”, which depicted Consort Sukbin Choi as the main titular character. However, since there are very few historical records about Consort Sukbin Choi, the drama “Dong Yi” should be seen as a strongly imaginative work.

Given this situation, King Yeongjo couldn't help but have a complex about his own social status, despite being a king. In such circumstances, his first son, Crown Prince Hyojang, died before reaching the age of 10, and it is difficult to imagine how great the expectations were for Prince Sado, the son he had after turning 40. However, as can be seen from "The Memoirs of Lady Hyegyeong," written by Prince Sado's wife, Hyegyeong-gung Hong Ssi, and various historical records, Prince Sado had mental health issues. In June 1757, he even killed six courtiers and eunuchs in a single day.

From the writings left by Prince Sado, it seems that he was aware of his own problems.

- I suffer from an innate melancholy unknown to others, Now, as I accompany the king in the midst of this heat, I feel tense, my fever is high, and my melancholia is so extreme that it's suffocating and unbearable. I cannot discuss these symptoms with the royal physicians. Since Your Highness is well-versed in the medicine that washes away depression, how about secretly preparing the medicine and sending it to me?

- It has been several days since I took this pill, but there has been no improvement at all.

- As I have a deeply rooted illness with no hope of recovery, I can only try to calm my mind as I suffer the embarrassment of it.

The symptoms of Crown Prince Sado worsened over time, and in January 1761, he even killed a royal consort, Gyeongbin Park, who was helping him get dressed. Crown Prince Sado's violence escalated day by day, and in 1762, King Yeongjo finally decided to depose him and demote him to the status of a commoner (seo-in). When a noble, queen, crown prince, or prince commits a crime and is deprived of their status and position, they are demoted to the

lowest social class, 'seo-in' in a process called 'pyeseoin' (demotion to commoner status). Subsequently, in 1762, on the 13th day of the 5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during the 38th year of Yeongjo's reign, Crown Prince Sado was ordered to commit suicide.

However, Crown Prince Sado did not follow the order, and Yeongjo imprisoned him in a 'dwiju'. A dwiju, or rice chest, is a chest for storing grain, and is not very large. Confined in the rice chest, Crown Prince Sado died on the 21st day of the 5th month of the lunar calendar. This incident was called the "Imo Hwabyeon" (Imo Incident) referring to this serious incident that occurred in 1762, the year of 'Imo' in the sexagenary cycle. After Sado's death, Yeongjo restored his status and bestowed upon him the title of "Crown Prince Sado" ("Sado Seja"). The name Crown Prince Sado which we use today originated from this event.

"Having already heard the report, how could I not think about the debt of favor that existed between father and son for nearly 30 years? Considering the feelings of my descendants and understanding the intentions of the ministers, I merely restore his title and, in addition, bestow upon him the posthumous name 'Sado Seja' (Crown Prince Sado)."

At that time, Jeongjo was the grandson of King Yeongjo, holding the title of 'royal third grandson.' Jeongjo was only 10 years old when his father passed away, old enough to remember the incident. And due to this event, he was adopted as the son of Yeongjo's eldest son, who had died at a young age, and the brother of Sado Seja, 'Hyojang Seja,' becoming the crown prince. Just by hearing this story, it is evident that Jeongjo's life was not smooth. There is a video showing the events of the Imo Incident and what happened during that time, centered around the space of Changgyeonggung Palace. Let's take a look at it together.

In May, the 38th year of King Yeongjo's reign, the unseasonable sound of nails resonates in Changgyeonggung Palace. The father, who keeps his son in the back state, locks the lock himself, nails it, and kills the only blood relative to succeed the throne with his own hands. Changgyeonggung Palace Munjeongjeon Hall was at the center of the greatest tragedy of the Joseon

Dynasty. Environmental Exhibition, one of the battlefields of the Changgyeonggung Palace, which contains numerous stories of the Joseon Dynasty, was the place where King Jungjong received medical treatment from Daejanggeum, and the now-defunct Jagyeongjeon was a building built by King Jeongjo for his mother, Hyegyeonggung Hong. In addition, Naenongpo, where previous kings demonstrated farming, was also located in Changgyeonggung Palace. Changgyeonggung Palace was the place where numerous kings and queens descended and the birthplace of Sunjo, Heonjong, and Jeongjo. The house restoration, a unique square-shaped pavilion located in the civil war. Used as a shelter for concubines, this is also the place where Crown Prince Sado, the main character of the Joseon Dynasty's greatest tragedy, was born. Munjeongjeon Hall was a compilation of Changgyeonggung Palace and was a kind of king's office. Munjeongjeon Hall, which was a place where the king usually lived, held a 'contest' to attend daily duties, or discuss academics with his servants. However, King Yeongjo used Munjeongjeon for other purposes. It was named Hwiryeongjeon after making it a wedding hall that houses the memorial tablet of Queen Jeongseong Seo, the first queen who died. One day, King Yeongjo, who was walking through Munjeongjeon Hall, hears the hearing of Queen Jeongseong, who died. The fact that the disturbance depends between breaths means that the reverse mother is close, and Yeongjo thinks of Crown Prince Sado after hearing this.

【참고문헌】

- 공공누리
- 문화유산채널
- e뮤지엄
- MBC
- SBS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학습 목표

-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explore the story of 'King Jeongjo' and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Their love story is exceedingly well-known in Korea. In MBC dramas "Lee San, Wind of the Palace" ("Yi San"), which aired in 2007, and "The Red Sleeve" ("Otsomae Bulkeun Ggeutdong"), which aired in 2021, =we were able to catch a glimpse of their story.

Now, let's meet the main characters of these two dramas, King Jeongjo and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King Jeongjo was the 22nd king of the Joseon Dynasty. Jeongjo is a 'posthumous name', which means it is a title given to honor the king's virtues after his death, not a title used during his lifetime.

In recent productions, there are times when the king is portrayed more as a person with personal and human aspects, rather than as a ruler. In such works, the character is usually established using the king's personal name. For example, the birth name of King Sejong the Great, who created Hangul, was 'Yi Do'. The Korean actor Han Suk-kyu played the role of King Sejong the Great in both the 2011 SBS drama "Deep Rooted Tree" ("Ppuri Gipeun Namu") and the 2019 film "The King's Letters" ("Naranmalssami"). In the SBS drama "Deep Rooted Tree", the name of King Sejong is set as 'Yi Do'. In this historical drama, Yi Do shows his love for the people and the creation of Hangul, in other words, the already well-known achievements of King Sejong the Great, but the drama also presents a very human image of King Sejong, who speaks his mind and even swears at times. In "The King's Letters", the name of the character Han Suk-kyu plays is 'Sejong',

not ‘Yi Do'. Compared to "Deep Rooted Tree", the role in "The King's Letters" was calmer and more solemn.

The MBC drama "Lee San, Wind of the Palace" (“Yi San”) featured the title '(Yi) Lee San' instead of 'King Jeongjo'. Jeongjo's name is ‘Yi San', but in the actual Joseon Dynasty, people could not casually address the king by his birth name, right? In the Joseon Dynasty, the king's name was called ‘hui’ (a 'taboo name'), and there was also the term ‘pihui, which means avoiding calling the king's name. This tradition is common in East Asia, because it is generally considered disrespectful to casually address someone of higher status by their name. For this reason, the king's name was designated with very difficult Hanja characters to minimize inconvenience, as using words and characters containing the king's name was restricted. Nevertheless, the title of the drama is "(Yi) Lee San". In "The Red Sleeve", King Jeongjo is also referred to as ‘Yi San', and when he first meets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as a child, he introduces himself as 'San'.

In the drama, Yi San's mother, Lady Hyegyeong, addresses her royal son as 'Jusang' using honorific language. However, in order to emphasize her sincere wish for her son's happiness as a loving mother, in the single sentence "San-ah, be happy", she calls him by the name 'San',

In both dramas, King Yeongjo’s character, who is Jeongjo's grandfather and the preceding king, is 'Yeongjo', and the other characters portraying royal family members also have names other than their given names. So the fact that only Jeongjo’s character uses his given name, ‘Yi San', is certainly a noteworthy point. The titles and character names reveal a focus on the personal aspects of King Jeongjo.

Royal Noble Consort Uibin is a royal concubine of King Jeongjo. The kings of the Joseon Dynasty could have multiple wives. Among them, there is only one queen, the principal wife. There was a drama called "Under the Queen’s Umbrella" (“Syurup”) that aired on tvN in 2022, which was a fictional historical drama set in the Joseon Dynasty. In actual history, there is no king named Yi Ho or a prince named Seongnam Daegun. In this

drama, the main character, played by actress Kim Hye-soo, is 'Im Hwa-ryeong', the queen and principal wife. The queen represents the 'namyeonbu', an organization that manages the queens, royal concubines, and palace maids in the palace. As such, in "Under the Queen's Umbrella", you can see Im Hwa-ryeong sitting in the center of a gathering with multiple royal concubines.

Royal Noble Consort Uibin is not the official wife of Jeongjo, but one of the royal concubines. She holds the title of 'Bin', and the prefix 'Ui' before 'Bin' is her honorary title, making her 'Uibin'. In "The Red Sleeve", Yi San finds a suitable alphabetical character for Deok-im and explains the meaning of the character. That character is 'Ui' (의-宜). The actual historical scene where Consort Uibin received her honorary title 'Ui' is recorded in the "Ilseongrok", the king's diary. "Ilseongrok" is a diary that King Jeongjo started writing from the time he was a prince that was intended for self-reflection. This diary, started by Jeongjo, continued to be written by subsequent kings until the last king of Joseon, Gojong.

Let's look at the record in Jeongjo's "Ilseongrok" from the 19th day of the 2nd month in 1783. "I asked Left State Councillor Lee Bok-won and Right State Councillor Kim Ik about the honorary title 'Bin' that I ordered to be given to So-yonggung (昭容宮). They said, 'The characters 철(哲), 태(泰), 유(裕), 흥(興), and 수(綏) seem to be good, but we dare not choose one and answer definitively.'" Thus, it is written, "Choose the character '의(宜)'." King Jeongjo asked his ministers for suggestions regarding the title to be bestowed upon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who was then known as Soyong-gung, and ultimately chose the character '의(宜)' as her title, which was not among the five characters suggested by the ministers. The drama "The Red Sleeve" adds a dramatic imagination to the scene where Uibin Seong's title is decided.

The birth name of Uibin Seong, whom Jeongjo cherished enough to personally select her title, is Seong Deok-im. In "The Red Sleeve", she also appears with the name Seong Deok-im. In the older drama, "Lee San, Wind of the Palace", she appeared with the name Seong Song-yeon, but this was

a fictional addition. The reason why the story of Jeongjo and Uibin Seong receives such attention in current popular culture is because their love story is very famous. There are two main aspects to examine: First, the story of Seong Uibin rejecting Jeongjo's favor twice, and second, the epitaph "The Tomb of the Royal Consort Written By The King" ("Eojeuibinmyojimyeong") that Jeongjo left after Uibin Seong's death.

It is said that Uibin Seong was connected to the family of Jeongjo's mother, Lady Hygyeong (Hyegyeong-gung Hong), who raised her. In 1766, when Jeongjo was the crown prince, he tried to bestow his favor upon Uibin Seong. However, she declined, stating that she could not accept it since the Crown Princess, Jeongjo's wife, had not yet borne a child. Here, 'favor' refers to the grace a subject receives from the king, and it can also mean becoming a concubine after sleeping with the king as a lady of the court. About 15 years later, after ascending the throne, Jeongjo tried to bestow his favor upon Uibin Seong again. Even then, Uibin Seong refused Jeongjo's favor, but she accepted it after Jeongjo punished her servant.

It is known that Uibin Seong was also close to Queen Hyoeui, Jeongjo's queen consort. That's why Lady Seong said she couldn't become a concubine since Queen Hyoeui couldn't bear a child. However, despite having a good relationship with Jeongjo, Queen Hyoeui was unable to have children. Uibin Seong was born in 1753. When she received Jeongjo's first favor, she was in her mid-teens, but she accepted his second favor when she was thirty years old in Korean age. Considering that this was the Joseon era, it was very late in life for Uibin Seong to become a concubine.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gave birth to a son, Crown Prince Munhyo, in 1782 and a daughter in 1784. However, Crown Prince Munhyo died at a young age from smallpox, and her daughter also passed away shortly after birth. Furthermore,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 passed away while pregnant not long after her son's death.

She had refused Jeongjo's favor for 15 years and died less than four years after accepting it. During that period, she experienced three pregnancies and lost all of her children. The exact cause of Royal Noble

Consort Uibin Seong's death is unknown, and there are various theories surrounding her passing. Jeongjo was deeply saddened by Uibin Seong's death.

Jeongjo's affectionate feelings are revealed in the epitaph he wrote for Uibin Seong, titled "The Tomb of the Royal Consort Written By The King". In the Joseon era, it was rare for someone to write an inscription on a tombstone for their spouse. Nevertheless, Jeongjo wrote a rather lengthy text for the deceased Uibin Seong and even detailed the anecdote about her refusing his favor. There is a mention of "The Royal Noble Consort, who had been of royal concubine rank for 20 years," which refers to the time when he first granted her favor. Jeongjo also left words about Uibin Seong's character. "The Royal Noble Consort was of humble origin and her family was not well-off, so she couldn't study under a teacher before becoming a royal concubine but she was wise even without formal education. For the queen" here he is referring to Queen Hyoeui, "For the queen, the earth would surely know and even the hardest metal and stone could be penetrated by the efforts, heart, and devotion the Noble Consort put forth for her."

In addition to this, there is a written ceremonial text called "Funeral Oration for the Royal Consort Written by the King" ("Eojeuibinchijejemun") for Royal Consort Seong, and the "Funeral Oration Written by the King" ("Eojechijejemun") composed during the ancestral rites also remains. In the drama "The Red Sleeve", after Deok-im passes away, Yi San does not mention her at all until he meets her friend Kyung-hee, and then he reveals his emotions. It is only then that he says, "She was my consort, my person. No matter how much time has passed, she is mine and I will never give her to anyone else," showing that he had not forgotten Deok-im. In the final episode of "The Red Sleeve", when Yi San dies, the story concludes with a reunion between him and Deok-im, who is waiting for him in the space where they first met in their youth.

In Yongsan-gu, Seoul, there is a place called 'Hyochang Park.' Hyochang Park is the former location of the tombs of Royal Consort Seong and

Crown Prince Munhyo. King Jeongjo placed the tombs of the two near Hanyang Fortress and named it Hyochang (孝昌), meaning filial piety and prosperity. This place was developed into a tourist attractio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tombs of Royal Consort Seong and Crown Prince Munhyo were relocated to Seosamneung in Goyang-si, Gyeonggi-do. Nowadays, Hyochang Park houses the tombs of independence activists such as Baekbeom Kim Gu, Lee Bong-chang, Yun Bong-gil, and Baek Jeong-gi. On the other side, the tombs of Lee Dong-nyeong, Jo Seong-hwan, and Cha I-seok, who worked for the Provisional Government, are also established.

【참고문헌】

- 공공누리
- 전통문화포털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 MBC
- SBS
- tvN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학습 목표

- 오늘날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In this session, we will appreciate the beauty of today's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Palaces together. In Joseon, there were five palaces: Gyeongbokgung, Gyeongungeung (also known as Deoksugung), Gyeonghuigung,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Changdeokgung and Changgyeonggung are located side by side. You can see their locations on this map, right? All of the Joseon palaces are beautiful, but the eastern palace ('donggwol') area consisting of Changdeokgung, Changgyeonggung, and their rear gardens is particularly beautiful.

Changdeokgung is the only palace among the five mentioned earlier that is listed as a UNESCO World Heritage Site. You can tour Changdeokgung along the path that leads from Donhwamun – Gumcheon Bridge – Gwolnaegaksa – Injeongjeon– Seonjeongjeon – Heejeongdang – Daejojeon – Nakseonjae, and it takes about an hour to explore all of them.

Donhwamun is the main gate of Changdeokgung. It has a two-story structure and is the largest of the palace gates. It was built in 1412 by King Taejong, the third king of Joseon, and was rebuilt in 1609 after being burned down during the Imjin Waeran (Japanese Invasion of Korea). At the time of building Donhwamun, Jongmyo Shrine was in front, so the entrance to the palace was located on the southwest side of the palace.

Gwolnaegaksa is a complex of government palace offices that assist the king and the royal family. Various offices serving the king closely are gathered here, making it a very complicated structure. What we see now is not a building built during the Joseon Dynasty, but a restored building from the early

2000s that was demolish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Next is the Geumcheon Bridge. It is a bridge built over the Geumcheon River, the main water source of Changdeokgung. It was installed by King Taejong in 1411 and its original appearance has been maintained. It is also the oldest stone bridge remaining in Seoul today.

Injeongjeon is the central building of Changdeokgung Palace. Important national ceremonies, such as the king's coronation, officials paying homage, and meeting foreign envoys, took place here. From the outside, it looks like a two-story building, but the interior is actually a single-story structure. It was built by King Taejong in 1405 and restored in 1610 and 1803 after being burned down during the Imjin Waeran. The chandeliers, curtains, glass windows, and wooden floors were renovated in a Western style in 1908.

Next, Seonjeongjeon was used as the king's office. It was rebuilt by King Injo in 1647 after being burned down during the Imjin Waeran and is the only building in the palace with blue tiles. Heejeongdang was originally the king's bedroom but was later used as the king's living quarters.

The current Heejeongdang was moved from Gangnyeongjeon at Gyeongbokgung Palace after being rebuilt in 1920 due to a fire in 1917, so it is different from the original Heejeongdang. The interior of the current Heejeongdang was decorated in a Western style during the 1920 restoration. Daejojeon was the official bedroom of Changdeokgung Palace and the living space of the queen. Like Heejeongdang, it was rebuilt in 1920 after being destroyed by fire in 1917 and was moved from Gyotaejeon, Gyeongbokgung Palace's bedroom. Similarly, the interior is designed in a Western style.

Nakseonjae is a building built by Heonjong and served as his study and living quarters. Heonjong built a building for his concubine, Royal Noble Consort Gyeong of the Gwangsan Kim clan, and also built Nakseonjae along with it. Nakseonjae, located within the palace, has a modest appearance without any colorful decorations and was still inhabited by the royal family even after liberation in 1945. The rear garden of Changdeokgung Palace showcases a representative traditional Korean garden, in which the natural

landscape has been preserved, with flowers and trees planted and ponds created before buildings have been arranged. Shall we take a look at a video featuring the rear garden together?

Next, we will explore the main buildings of Changgyeonggung Palace. Honghwamun is the main gate of Changgyeonggung Palace. It was built in 1484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gjong, burned down during the Imjin Waeran, and rebuilt in 1616. Like the Donhwamun of Changdeokgung Palace, it is a two-story pavilion.

Next is Myeongjeongjeon, the central building of Changgyeonggung Palace, which serves the same function as Injeongjeon of Changdeokgung Palace. This is where the official state events took place. Next, Munjeongjeon was the side hall and office of Changgyeonggung Palace. The main buildings of Changgyeonggung Palace, Honghwamun and Myeongjeongjeon, face east, while Munjeongjeon faces south, facing a different direction than Myeongjeongjeon. This is a unique feature not found in other palaces.

Sungmundang and Haminjeong were places where the king and his officials discussed politics and learning together. Sungmundang is believed to have been built during the reign of Gwanghaegun and was burned down in 1830, then rebuilt that same autumn. The building also has a tablet handwritten by King Yeongjo. Haminjeong is a pavilion built in 1633, located in front of Sungmun.

Gyeongchunjeon, Hwangyeongjeon, Tongmyeongjeon, and Yanghwadang were buildings used as sleeping quarters. Gyeongchunjeon was used by the Queen Dowager, Queen, and Crown Princess, while Hwangyeongjeon appears to have been used by the King or Crown Prince. Tongmyeongjeon was mainly used as the Queen's sleeping quarters, and Yanghwadang was used as a reception space for the inner palace. All of the buildings mentioned were rebuilt in 1834.

Yeongchunheon was also used as a residence for concubines. Crown Prince Sado and King Sunjo were both born in Jipbokheon. There were also spaces where palace women gathered, but all the buildings have disappeared due to

Japanese colonization, leaving only the sites. Changgyeonggung Palace also has a pond called Chundangji, of which only a very small part remains from the Joseon Dynasty. The larger part of the pond was expanded by the Japanese, and it was originally a rice paddy where the King cultivated crops. It's surprising that the King himself cultivated crops, right? This shows that the King and Queen of Joseon directly engaged in agriculture, the nation's foundation industry, praying for a good harvest and symbolizing their mastery of farming.

Gwandukjeong is a pavilion for archery. Built in 1642, the spacious front area was said to have been used as a military training ground and martial arts examination site. The scenery is also very beautiful, right? Many poems praising the beauty of autumn leaves have been handed down. Changgyeonggung and Changdeokgung Palaces are incredibly beautiful spaces and great for strolling. If you get the opportunity, please be sure to visit.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창덕궁관리소
- 한국관광공사

讲义

4주차 18세기와 창덕궁 · 창경궁

주차별 차시

	차시명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2차시	혜경궁 홍씨와『한중록』그리고『기사진표리진찬의궤』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1차시 영·정조 시기의 창경궁과 창덕궁

학습 목표

- 조선시대 영·정조 시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창덕궁과 창경궁의 역사를 파악할 수 있다.

大家好，我是韩国语言文化学术传播研究所的研究教授金汝舟. 本课时我们将来了解一下英祖、正祖时期的情况以及昌德宫和昌庆宫的历史. 朝鲜的宫殿昌德宫和昌庆宫是朝鲜后期历史的中心地. 回顾昌德宫和昌庆宫的历史以及在那里发生的事情，可以更好地了解朝鲜以及今天的韩国.

昌德宫和昌庆宫均位于首尔市的钟路区. 而且两座宫殿相互倚墙紧靠，通过地图可以确认这一点. 所以两座宫殿和被称为祕苑的后苑，合称为表示位于东北的宫阙的'东阙'. 朝鲜时代，在汉阳共有五座宫殿，最中心的宫殿是'景福宫'. 其次是昌德宫. 但16世纪后期的壬辰倭乱给汉阳带来了巨大损失.

'壬辰'指的是年份，是1592年. '倭'指的是当时的日本，'乱'是战争的意思. 壬辰倭乱与朝鲜中期丙子胡乱，是被并称为'两乱'的重大事件. 丙子胡乱中的'丙子'指的是1636年，而'胡'则意味着清朝. 还有'乱'就是战争. 两次战争都给朝鲜造成了重大损失，特别是壬辰倭乱，景福宫、昌庆宫、昌德宫都发生了大火. 因此，朝鲜没有立即复原景福宫，而是复原了昌德宫，之后复原了昌庆宫. 景福宫直到高宗4年即1867年才得以重建，因此从1600年代到1800年代中期，朝鲜的历史应该视为由东阙主导. 特别是从1724年到1776年统治朝鲜的第21代国王英祖和从1776年到1800年进行统治的第22代国王正祖，取得了政治上的稳定，因此发展了多种文化.

英祖和正祖实行了维持政治势力均衡的人才录用系统-'荡平策'，主导了国政稳定. 在朝鲜后期，政治集团'朋党'的势力越来越大，与其他党系的矛盾日益加深，由此带来的弊端非常严重. 朝鲜时代行政部的最高机关是'议政府'. 这里的最高职位是被称为'领议政、左议政、右议政'的三名丞相，即'三丞相'. 任命人员时，如果在领议政的职位上选了A党的人，那么在左议政的职位上就会使用B党的人，以这种方式进行安排，彼此牵制，避免集中于同一党派，这就是'荡平策'.

另外，相较于强烈表现出各党派色彩的人才，任命更注重团结的人. 这种方式虽然很难看作是符合大臣个人能力的人事安排，但是适合当时分为各个党派并且矛盾加深的情况的方式，因此，当时朝鲜的政治矛盾呈现出缓和的趋势. 今天在韩国任命政治人士时，将各党派的人分开任用的方式被称为'荡平人事'，这种表述就是从这里开始的.

正祖还设置了'奎章阁'，取用有实力的人才. 奎章阁也是位于昌德宫后苑的建筑名称. 奎章阁的'奎章'指的是君主写的墨迹和文章，意思是收集这些墨迹和文章的一种王室图书馆. 正祖在自己即位的当年，即1776年建立了奎章阁，用作研究学问、政策的机构.

另外，正祖在奎章阁召集了与党派或身份无关的有能之人，在此过程中任用了'中人'或'庶孽'等，在当时来说是十分破格的举动. 中人是介于两班和平民之间的身份，主要从事技术职务或文职工作. 庶孽指的是庶子和孽子，意思是两班子女中不是正室夫人，而是妾室所生的子女. 虽然他们的父亲是两班，但由于母亲身份低微或不是正室夫人，所以无法得到应有的待遇. 韩国古典小说中《洪吉童传》的主人公'洪吉童'就是庶孽，洪吉童的父亲是两班，但母亲是奴婢出身. 因此洪吉童成为了无法'呼父呼兄'的身份. 像洪吉童这种庶孽在家受到歧视，而且即使有能力，也不能参加成为官吏的科举考试. 正祖把有实际能力的中人和庶孽召集到了奎章阁，接受清朝和西方的发达学问，不仅使学问开花结果，还将其作为自己改革政治的动力. 正祖为了将奎章阁打造成政治独立的空间，禁止高官权臣出入，并全力支持奎章阁大臣专心学习.

1700年代，施行了各种税收制度，即对税收的改革. 借此商业复兴，成为了汉阳跻身商业城市的契机. 下面我们来看一下这些事情的中心地-昌德宫和昌庆宫的历史.

建立朝鲜的太祖将首都定在汉阳，建造了景福宫. 但太祖的儿子、朝鲜的第二代国王定宗却想把首都迁至开京. 开京是朝鲜的前王朝高丽的首都，今天的名字是开城，现在位于朝鲜. 但朝鲜第三代国王太宗再次迁都汉阳，建造了昌德宫. 这样看来，出现了三位国王，虽然看起来时间很长，但实际上是从朝鲜建国初期的1394年到1405年，10年间发生的事情. 朝鲜第四代国王世宗为了将王位传给自身而退位的父亲太宗，在高丽时代建造的宫殿旧址上建立'寿康宫'，昌庆宫正是始于'寿康宫'. 朝鲜第9代国王成宗为了供奉多位王室长辈，于1483年建造了昌庆宫.

如果说景福宫是遵循朝鲜宫殿规则的建筑，那么昌德宫和昌庆宫则相对来说更加自然. 朝鲜时代的宫殿都很漂亮，但昌德宫及其后苑特别漂亮. 接下来，让我们来看一下可以欣赏昌庆宫与后苑的秋景的视频.

但朝鲜时代的宫殿在日帝强占期，经历了很多苦痛. 特别是昌庆宫在1911年被日帝降级为'昌庆园'. 失去了作为宫阙的地位. 日帝拆除了昌庆宫内的建筑，建成了动物园和植物

园，供人们游玩. 然后切断与宗庙相连的部分，修建了道路等，改变了宫殿原有的面貌. 即便在光复后，也曾维持昌庆园的动物园，从1983年开始搬迁动物园，为恢复宫殿的面貌而努力.

有一段很好地展现了昌庆宫在日帝强占期所经历的痛苦的视频， 我们来看一下这个视频，结束本课时.

在昌庆宫， 春天无比美丽. 虽然有很多赏春的游客来到形成花之宫殿的昌庆宫享受春日，但昌庆宫的春天却蕴含着我们无法盲目享受的历史的痛苦. 日帝'花与浪漫'的美名下，将昌庆宫打造成樱花乐园. 掩埋在盛开的樱花下的500年的朝鲜王朝的历史逐渐被遗忘. 昌庆宫后苑的莲池，春堂池. 变绿的垂柳将昌庆宫的春天装饰得更加美丽. 春堂池上边，有一座与宫殿形象不符的建筑. 是由钢架和玻璃建成的韩国最早的西式植物园-昌庆宫大温室. 由日帝建造的温室虽然生长着韩国固有的本土植物， 但也是象征着一度被日帝损毁的昌庆宫的令人心痛的历史的建筑. 朝鲜王朝的灵魂所在， 昌庆宫. 日帝从1908年春天开始损毁昌庆宫的尊严. 不仅在殿阁旁边建造了日式建筑，还将明政殿前的庭院，即朝庭改造成了花园.

另外， 明政殿周边的殿阁被拆除， 取而代之的是博物馆， 南侧报漏阁一带还建造了动物园. 昌庆宫受损严重，60多栋殿阁和围墙被拆除或变形，甚至挖出了基坛、基石，使人连痕迹都无法找到. 作为莲池的春堂池也未能摆脱破坏之手. 周围建造了作为日式建筑的水晶宫，莲池被挖得更宽，改造成了划船的地方. 1909年，大韩帝国末代皇帝纯宗出席了动植物园的开园仪式，韩日合邦的第二年，其名字从昌庆宫降格为昌庆园. 昌庆宫的变化不止于此. 曾经建有一堵围墙， 以树林相连的宗庙和昌庆宫. 作为抹杀民族灵魂政策的一环， 日帝拆除了宗庙和昌庆宫之间的围墙，在其位置上打通了大路，形成了彼此隔断的空间. 另外，在院子里种下了数千棵象征日本的樱花树. 在成为游乐园的昌庆宫， 朝鲜王朝的痕迹逐渐消失， 就这样失去了作为宫殿的尊严.

1924年4月，昌庆园首次点亮彩灯， 开始了夜晚的樱花之旅. 从此昌庆园变成了热闹的游乐园. 即便在解放后，昌庆园的樱花节也曾继续. 在缺乏特别的游乐空间的时候，对贫困的庶民而言，可以赏花看动物的昌庆园是最适合的娱乐空间,也是任何人都想去的最好的春游场所. 但每年春天涌入的游客使昌庆宫饱受煎熬，人潮引起的骚乱每年都会出现在报纸的社会版面上.

终于在1983年， 文化遗产管理局发表了昌庆宫复原计划. 虽然很多殿阁都处于被破坏的状态， 但根据东阙图、宫殿志等制作了复原设计图. 另外， 动物和樱花树的处理问题成为了关注焦点， 动物们被转移到果川首尔大公园， 樱花树大部分被转移到汝矣岛的轮中路和首尔大公园种植.

1986年，终于日式建筑和作为水泥建筑的动物舍也全部被拆除，文政殿等旧殿阁也得以复原．另外在樱花树的位置上种植了精心栽培的松树和槿树，增加了宫殿的威严．被华丽的樱花所埋没的朝鲜王朝的历史，过去的苦痛、赏花的浪漫和回忆现在也将成为昌庆宫的一部分．

【참고문헌】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문화재청
- e뮤지엄

2차시 혜경궁 홍씨와『한중록』그리고『기사진표리진찬의궤』

학습 목표

- 혜경궁 홍씨의 삶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 『기사진표리진찬의궤』를 통해 당시 왕실의 모습을 파악할 수 있다.

本课时一起来了解一下'惠庆宫洪氏'. 本课时将考察惠庆宫洪氏著述的《闲中录》和惠庆宫洪氏的宴会记录《己巳进表里进馔仪轨》, 对于她的人生进行重新思考.

惠庆宫洪氏出生于1735年, 1815年去世, 享年80岁. 并且作为思悼世子的夫人入宫, 是历经英祖、正祖、纯祖三代的人物. 目睹了作为公公的英祖和自己的丈夫思悼世子的矛盾过程以及丈夫的死亡, 还有自己的儿子和孙子登上王位的过程. 惠庆宫洪氏是思悼世子的正室夫人, 如果思悼世子登上王位, 就会成为王妃. 但由于思悼世子的去世, 惠庆宫洪氏没能成为王妃, 只是作为世子妃留了下来. 这意味着惠庆宫洪氏虽然是正祖的母亲, 顺祖的奶奶, 但也无法成为正式的大妃或王大妃. 因此正祖赐予其'惠庆宫'的宫号, 即'~宫'的称号.

在2022年播出的电视剧《衣袖红镶边》中, 英祖的女儿和缓翁主对惠庆宫洪氏说道 : "你永远无法成为大妃," 惠庆宫洪氏承认了这一点并说道 : "正如翁主所说, 我永远无法成为大妃. 不过是一介嫔妃而已." 并且还说 : "即便这样也是怀胎十月生下孩子的母亲, 所以世孙才努力好好对待她, 说是日后要给这位母亲赐予宫号. 连宫号和尊称都定好了, 惠庆宫殿下." 因为不是王妃, 所以不能成为大妃或王大妃, 这是儿子正祖为了礼遇既是君王的母亲又是奶奶的她而提出的想法. 就像电视剧里出现的场面一样, 我们称她为'惠庆宫洪氏'.

惠庆宫洪氏是亲眼目睹了公公英祖和丈夫思悼世子的矛盾的人物. 惠庆宫洪氏于1744年, 以9周岁的年龄与同龄的思悼世子结婚, 被册封为世子嫔. 1750年生下了第一个孩子懿昭世孙, 但幼年时夭折了, 同年生下了当时国王的孙子, 即王世孙正祖. 朝鲜第21代国王英祖是朝鲜27代国王中最长寿的国王, 活到80多岁, 也是执政时间最长的国王, 在位51年. 英祖是之前的第20代国王景宗的弟弟, 而不是儿子, 是肃宗与非正式王妃的后宫淑嫔崔氏生下的儿子.

据说, 因此英祖因为自己的出身受到了很多压力. 而且英祖与正妃贞圣王后没有子嗣, 虽然后宫靖嫔李氏生下了长子孝章世子, 但早早就夭折了. 英祖年过四十的时候, 与其他后宫暎嫔李氏生下了思悼世子. 英祖老来得子, 该有多疼爱啊. 英祖在思悼世子出生一年后, 在韩

国第一个生日被称为'周岁'. 周岁一过，他就把思悼世子册封为王世子，据说为子女的教育十分费心. 据说思悼世子也很聪明. 只是思悼世子在成长过程中经历了很多困难，在代理听政的过程中，与父亲英祖的关系逐渐疏远. '代理听政'是国王因各种原因无法顾及国家时，继承人代替国王处理国事的制度. 英祖自己上了年龄，所以说要进行代理听政，但实际上思悼世子对王权早有欲望，因此英祖无法很好地认可儿子的权限. 最终思悼世子在精神上暴露出了问题.

据说，杀害或拷问了在宫殿工作的内侍和宫女，并且有很难穿上衣服的强迫症. 因此，帮助世子穿衣服的人消失后，世子疼爱的后宫敬嫔朴氏出面了，但还发生了将敬嫔朴氏殴打致死的事件. 思悼世子的这种逸闻在朝鲜王朝的正式记录《朝鲜王朝实录》中也有记载，但在思悼世子去世1年前就出现了. 因此，与思悼世子相关的事件以惠庆宫洪氏撰写的《闲中录》为基础.

《闲中录》的意思是闲暇时写的文章，在以直接抄写的方式流通的《闲中录》手抄本中，也有用的不是'悠闲'的'闲'而是'怨恨'的'恨'的情况. 《闲中录》大致分四篇撰写完成. 第一篇是儿子正祖在王位期间撰写的，是关于她从小到现在的生活的部分. 第二篇是关于正祖死后娘家的冤屈的文章. 第三篇是要求孙子纯祖洗刷自身冤屈的文章. 第四篇是英祖的第二任正室夫人贞纯王后去世后写的文章，详细讲述了思悼世子被关在米柜中死亡的事件.

这样看来，《闲中录》与其说是事件当时的记录，不如说是经过相当长的时间后撰写的文章. 思悼世子于1762年去世，正祖登上王位是在1776年. 最后第四篇文章是在贞纯王后去世的1804年以后写的，与思悼世子去世相关内容在近40年后才写的. 尽管如此，根据今天的精神科医生的分析，认为思悼世子的症状非常写实. 《闲中录》的记录生动地传达了朝鲜时代巨大的悲剧-思悼世子的死亡. 韩国电视剧和电影可以经常讲述思悼世子故事的要素之一就是《闲中录》中留下的当时的记录.

《闲中录》与《仁显王后传》和《癸丑日记》一并被称为朝鲜的宫廷文学，还具有王室女性亲自撰写的特点. 惠庆宫洪氏目睹了丈夫的奇怪行迹，还看到了曾是世子的丈夫被公公降级为平民，被关在米柜中死去. 她无法成为王妃，儿子正祖的户籍也被改成了不是思悼世子的儿子，而是早逝的伯父孝章世子的儿子，改籍之后登上了王位. 在这种情况下，正祖和纯祖为了守护作为自己母亲、奶奶的惠庆宫洪氏做出了各种努力. 之前看到的'惠庆宫洪氏'的宫号也是其中一环.

纯祖在己巳年，即1809年. 阴历1月22日，在昌庆宫景春殿举行了庆祝奶奶惠庆宫入宫60周年的活动. 当时纯祖为惠庆宫举行了'进表里'的仪式，是为了报答惠庆宫的慈爱和祈求长寿而举行的呈上新衣料的活动. 据说，阴历2月27日，王室姻亲聚在一起举行了庆祝宴会'进馔'. 纯祖企划这一活动的同时说道："冠礼(成人礼)回甲是我们王室史无前例的例子. 想要报答如春日阳光般温暖的恩惠，是子女的至情，祈愿万寿无疆，是发自内心的一点心意." 惠庆

宫洪氏是思悼世子的夫人，所以不是王妃或王的夫人．但她是正祖的母亲，也是纯祖的亲奶奶．因此纯祖为奶奶举行了冠礼，纪念她入宫六十周年的‘花甲’．

回甲是‘甲子’又回来了的意思． 十天干， 甲、乙、丙、丁、戊、己、庚、辛、壬、癸和十二地支，子、丑、寅、卯、辰、巳、午、未、申、酉、戌、亥中各取一个字结合而成六十干支， 每年赋予一个干支．第一个干支‘甲子’，第二年是‘乙丑’、之后是‘丙寅’．第十年是‘癸酉’年，之后是‘甲戌’、‘乙亥’、‘丙子’按照这种顺序排列下去．从甲子开始到癸亥介绍，共有60个干支．

据说，纯祖在己巳年的1809年举办了惠庆宫的冠礼回甲，也就是说，在60年前的己巳年1749年，惠庆宫曾举行过冠礼．回甲或还甲也是经常用于人们生日的词汇．例如，最近的己巳年是1989年．这时出生的人将在2049年再次迎来己巳年．这时就成了1989年出生的人的还甲． 当时活动进行的所有事项， 现在的我们也能知道， 因为纯祖整理了活动内容， 编纂了仪轨．

仪轨是国家举行大型活动后为后代留下的记录，是详细记录了活动开始到结束的经过的文件．此文件是《己巳进表里进馔仪轨》．该文件中记载了活动的准备和进行过程、使用的物品和费用， 还收录了49页留下了细腻描写和鲜明色彩的图画． 该仪轨原来被藏于韩国的‘外奎章阁’．但因为丙寅洋扰，1866年的事件．当时流入法国，1891年英国国立图书馆购买了该仪轨．因此，该仪轨现在的收藏场所也是英国国立图书馆．不久前在首尔市龙山区的国立中央博物馆进行了‘外奎章阁仪轨，其高贵的意义’的展览，大型展厅正面用动画片再现了为惠庆宫洪氏举行的己巳年盛宴．今天能够再现这一场面，多亏了《己巳进表里进馔仪轨》．

【참고문헌】

- 국립중앙박물관

3차시 영조와 사도세자 그리고 정조

학습 목표

- 영조와 사도세자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各位，本课时来考察一下朝鲜王室的悲剧-思悼世子的死亡.

朝鲜英祖、正祖时期在政治上是非常繁盛的时期， 是朝鲜时代发生的唯一跨代继承王位的事件. 这个故事在韩国也广为人知， 在大众媒体上也经常被提及. 朝鲜的第21代国王是英祖. 英祖是第19代国王肃宗的儿子. 肃宗也是韩国大众媒体中经常提及的国王，以仁显王后和禧嫔张氏的矛盾为中心. 韩国古典小说中有金万重写的、题为《谢氏南征记》的作品， 该作品也是以仁显王后和禧嫔张氏的矛盾为基础创作的小说，但关于其创作时期存在很多分歧.

现代韩国电视剧主要以禧嫔张氏为主角， 通过图表， 可以确认题目中包含‘张禧嫔’，即禧嫔张氏的电视剧和电影. 这种电视剧或电影基本上把焦点放在了禧嫔张氏是恶女这一点上，在SBS2012年播出的电视剧《张玉贞，为爱而生》中，出现的不是张禧嫔而是张禧嫔的本名张玉贞，通过这一点就足以知道，这部电视剧是以不同于以往将其视为恶女的观点，从全新的角度进行重新诠释的电视剧. 在大众电影中，刻画了仁显王后和禧嫔张氏的矛盾，如此一来，也描绘成了肃宗的女性关系复杂，或者放任王妃与后宫的矛盾. 但肃宗是在政治上利用了王妃与后宫的关系，而不是王权薄弱或沉溺于女性的君王. 肃宗是在继承王位的正统性方面毫无欠缺的国王. 以孝宗-显宗-肃宗的顺序继承王位，显宗和肃宗在自己世代没有兄弟. 也就是说，本人是唯一的王位继承者.

另外， 肃宗是父亲显宗与正室夫人明圣王后所生的儿子. 王妃的儿子被称为大君， 肃宗出身于大君. 作为参考， 国王的儿子中， 王妃的儿子被称为‘-大君’，后宫的儿子被称为‘-君’. 王妃的女儿被称为‘-公主’，后宫的女儿被称为‘-翁主’. 像这样英祖的父亲肃宗在王权方面完全没有受到威胁的因素.

但肃宗之后的情况有所不同. 肃宗之后的王位由禧嫔张氏的儿子景宗继承. 禧嫔张氏是后宫出身， 虽然一度登上王妃的宝座， 但随着之前的王妃仁显王后回归， 再次降为后宫禧嫔. 据说，此后，禧嫔张氏在自己的住所后建造了诅咒仁显王后的神堂，肃宗命禧嫔张氏自尽，禧

嫔张氏遵从. 仅此一点, 对景宗来说, 应该也是很大的负担.

但景宗没有留下子嗣, 登上王位4年后死亡了, 景宗的弟弟英祖登上了王位. 英祖不是以国王的儿子而是以弟弟的身份登上了王位. 英祖的母亲是肃宗的后宫淑嫔崔氏, 淑嫔崔氏是打杂婢女出身. 打杂婢女是宫女中打杂的, 身份很低. 后宫有从两班出身到宫女等多种出身, 其中英祖的母亲身份非常低微.

在《张玉贞, 为爱而生》中, 淑嫔崔氏是站在仁显王后一边的人物, 被描述为不会读韩文. 2010年MBC播出的电视剧《同伊》是将淑嫔崔氏刻画成主人公'同伊'的电视剧. 只是关于淑嫔崔氏的历史记录非常少,《同伊》应该看作是反映了很多想象的电视剧.

因此, 英祖虽然是国王, 但只能对自己的身份感到自卑. 在这种情况下, 作为大儿子的孝章世子不到10岁就去世了, 英祖对于年过40岁得到的儿子-思悼世子的期待有多大, 是难以想象的. 但从思悼世子的夫人惠庆宫洪氏留下的《闲中录》和很多史书中可以看出, 思悼世子存在精神上的问题.

据说在1757年6月的某一天内, 杀害了6名内侍和宫女. 从思悼世子留下的文章来看, 思悼世子自己也意识到了这一点.

"余本人难知郁火之疾. 今入侍暑火或郁极, 则若狂, 此等之疾不可与语医官也.卿熟知治郁之剂, 暂治而送如何？服此丸已过数日, 毫无差池. 余深病无治愈之期,唯静心悯然."

思悼世子的症状越来越严重, 1761年1月还发生了殴打帮助自己穿衣的后宫敬嫔朴氏致死的事件. 思悼世子的暴力性日益严重, 最终英祖在1762年废除了世子, 将身份降为庶人. 两班、王妃、世子、大君等犯了罪, 剥夺其身份和地位, 将身份降为被支配阶层的'庶人'的措施被称为叫做'废庶人'. 然后命令思悼世子自决, 即自杀. 当时是英祖38年, 1762年的闰5月13日. 但思悼世子没有听从, 英祖将思悼世子关在了米柜中. 米柜是装粮食的家具, 容量不是很大. 被关在米柜中的思悼世子于闰5月21日死亡. 此事件发生在壬午年的1762年, 被称为'壬午祸变', 意为非常严重的灾祸.

英祖在思悼世子去世后归还了他的身份, 并赐予'思悼世子'的谥号. 我们所称的思悼世子的名称来源于此.

"既闻此报之后, 岂不思近卅载父子之恩乎？顾世孙之心, 谅大臣之意, 只复其号, 而兼謚

以名曰思悼世子."

当时正祖是英祖的孙子'王世孙'的身份. 正祖在父亲去世时才10周岁, 是能够记住这件事的年龄. 因此这一事件, 被收养为英年早逝的英祖的大儿子、思悼世子的哥哥孝章世子的儿子, 成为了'世子'. 光听这个故事, 就知道正祖的人生不会一帆风顺.

有一段视频以昌庆宫的空间为中心展现了壬午祸变和当时发生的事情. 一起来看一下.

蕴含着朝鲜王朝众多故事的地方, 昌庆宫内殿殿阁之一的欢庆殿曾是中宗接受大长今诊疗的地方, 现在消失的慈庆殿是正祖为母亲惠庆宫洪氏建造的建筑. 另外, 历代君王亲自示范农事的内农圃也位于昌庆宫. 昌庆宫是众多国王和王后驾崩之地, 也是纯祖、宪宗、正祖等君王诞生的摇篮. 位于内殿的ㅁ字形独特的殿阁-集福轩. 曾是后宫的住处的此地, 也是朝鲜最大悲剧的主人公-思悼世子出生的地方. 文政殿作为昌庆宫的偏殿, 是国王的办公室. 文政殿是君王平时起居、日常办公或与大臣们讨论学问、进行'经筵'的地方. 但英祖将文政殿用于其他的用途. 作为供奉去世的第一位王妃贞圣王后徐氏的牌位的魂殿后, 命名为徽宁殿. 有一天, 在文政殿散步的英祖, 听到了死去的贞圣王后的声音. 所谓'变在呼吸之间'意为着谋反很近, 英祖听到这句话后想起了思悼世子.

思悼世子是英祖失去第一个儿子后, 在41岁的高龄才得到的儿子. 英祖对世子的喜爱和期待非同一般. 思悼世子不负众望, 聪慧过人, 令国王喜出望外. 从册封王世子当时下达的竹册中也可以看出这种心情. 英祖经常召来儿子确认学习的内容, 严格的父亲英祖只要世子表现出一点不足的样子, 就会严厉地催促他. 也许是因为对父亲的恐惧, 世子越长大越经常胡作非为, 饱受精神病和强迫症的折磨.

英祖的愤怒通过罗景彦这个人呈上的告变达到了极点. 罗景彦告发了变故, 21天后英祖将世子叫到文政殿. 然后给世子赐下令人难以置信的谕旨. 世子拒绝父亲要求自决的命令后, 英祖更加生气, 甚至把儿子关在米柜中自己钉上了钉子. 距离弘化门南70多米远的宣仁门. 思悼世子进入米柜, 被从文政殿移至宣仁门中. 闰五月中旬. 按照阳历的话, 是在7月的烈日下度过8天的思悼世子终于在米柜内去世. 在宣仁门前一动不动地目睹了这一悲剧的400年历史的槐树. 也许是听到世子彻夜哭泣的哭声, 槐树全身扭曲地站着.

但哪个父亲会杀死孩子而不捶胸顿足呢? 后来英祖对儿子的墓碑吐露了悲痛之情. 世子死后, 英祖赐予了所谓思悼世子的庙号. 思悼之道, 哀哉之道. 这是为残忍的命运感到悲伤的父亲的心. 虽然是拥有一切、无所不为的人生, 但失去最重要的东西的二人. 在文政殿前

院，承载着恐惧中死去的思悼世子的凄惨的呐喊和因后悔而捶胸的父亲的眼泪.

英祖38年闰5月，昌庆宫响起了不合时宜的钉子声。 把儿子关在斗州里的父亲亲自锁上锁头，打钉子，亲手杀死了继承王位的唯一亲人。 昌庆宫文正殿位于朝鲜王朝最大的悲剧的中心。 蕴含着朝鲜王朝无数故事的地方,昌庆宫内殿殿之一的环境殿是中宗接受大长今诊疗的地方,现在消失的自庆殿是正祖为母亲惠庆宫洪氏建造的建筑物。另外,历代国王亲自示范农耕的我的农炮也在昌庆宫。 昌庆宫是众多国王和王后驾崩的地方，也是纯祖、宪宗、正祖等诞生的摇篮。位于内战的丄字形态的独特殿阁集福轩。这里曾被用作后宫们的住所,也是朝鲜最大悲剧的主人公思悼世子出生的地方。 文正传是昌庆宫的偏殿，是一种国王的办公室。 文正传是国王平时居住、日常办公或与大臣们讨论学问的"比赛"的地方。但英祖将文正传用于其他用途。作为供奉死去的第一代王妃郑成王后徐氏牌位的混殿后，被命名为辉灵殿。 有一天，在文正殿散步的英祖听到了去世的郑成王后的幻听。"变乱取决于呼吸"这句话的意思是"逆谋很近",英祖听到这句话后想起了思悼世子。

【참고문헌】

- 공공누리
- 문화유산채널
- e뮤지엄
- MBC
- SBS

4차시　정조와 의빈 성씨의 사랑 이야기, 〈옷소매 붉은 끝동〉

학습 목표

- 정조와 의빈 성씨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대중문화 작품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各位，这次我们来考察一下‘正祖’和‘宜嫔成氏’。二人的爱情故事在韩国无人不知无人不晓. 因为在2007年播出的MBC电视剧《李祘》和2021年播出的MBC电视剧《衣袖红镶边》中可以看到二人的故事. 那么我们来见一下两部电视剧的主人公正祖与宜嫔成氏.

正祖是朝鲜的第22代国王。正祖是‘庙号’，即为了纪念国王死后，为颂扬在世时的功德而起的称呼. 所以不是活着的时候使用的称呼. 在最近的内容物中，相较于作为国王的一面，有时更突出个人化、人性化的国王形象. 在这种作品中，大部分都是以王的名字构筑角色.

例如，创造韩文的世宗大王的名字叫‘李祹’。韩国演员韩石圭在2011年播出的SBS电视剧《树大根深》和2019年上映的电影《天文：问天》两部作品中都饰演了世宗大王。SBS电视剧《树大根深》中世宗大王的名字被设定为‘李祹’。相应的历史剧中，李祹展现了热爱百姓、创制韩文等之前已经广为人知的世宗大王功绩，但也展现了口无遮拦，有时还骂人的非常有人情味的世宗大王.《天文：问天》中演员韩石圭的角色名不是李祹，而是‘世宗’. 是比之前的《树大根深》更沉稳、更稳重的角色. MBC电视剧《李祘》从题目开始就展现了不是‘正祖’的‘李祘’.

正祖的名字叫‘李祘’，但实际上在朝鲜时代不能随便称呼国王的名字. 在朝鲜时代，君王的名字被称为‘讳’，也意为避开君王名字的‘避讳’一词. 这种传统也在东亚共享. 因为曾认为随便称呼上级的名字是没有礼貌的. 因此国王的名字是用很难的汉字起的. 因为不能使用君王的名字中包含的汉字和词语，所以这是为了减少由此带来的不便。尽管如此，电视剧的题目还是《李祘》.《衣袖红镶边》中的正祖也是以‘李祘’出现的，在小时候第一次见到宜宾成氏的场面中，自称是‘祘’. 电视剧中李祘的母亲惠庆宫洪氏将作为君王的儿子称为‘主上’，并且使用敬语。但为了强调这是真心希望儿子幸福的母亲说的话，只在“祘啊，幸福起来吧”这句话中叫了‘祘’的名字.

两部电视剧中，正祖的爷爷，也是前一代君王的英祖的人物名都是以‘英祖’出现的，其他王族使用的都是本名以外的称呼，从这一点来看，只有正祖使用本名‘李祘’这个角色名，是

值得关注的地方. 在题目和登场人物的名字中也表现出了集中于国王正祖的个人历史领域的倾向.

宜嫔成氏是正祖的后宫. 朝鲜时代的国王可以有多名夫人. 其中, 作为正室夫人王妃就只有一名. tvN在2022年播出的电视剧《王后伞下》, 是以朝鲜时代为背景的虚拟历史作品. 实际历史上没有叫作李浩的国王, 也没有叫作成栟大君的大君. 这部电视剧的主人公-金惠秀饰演的'林华玲'是作为正室夫人的王妃. 王妃是内命妇, 也就是管理宫中王妃、后宫和宫女的组织的代表. 因此, 在《王后伞下》中可以看到在众多后宫相聚一堂的场合, 林华玲坐在正中央的场景. 宜嫔成氏不是正祖的正式王妃, 是后宫之一. 是后宫中的'嫔', 前面加的'宜'字, 作为嫔号, 成为了'宜嫔'. 在《衣袖红镶边》中, 李祘给德任找到了合适的字后, 对这个字进行了说明. 这个字就是'宜'. 在真实的历史中, 将'宜'作为嫔号, 赐予宜嫔成氏的场面记录在了作为国王日记的《日省录》中.

《日省录》是正祖从王世孙时期开始写的, 为了作为自省的资料而写的日记. 正祖开始写的这本日记, 延续到之后国王, 直到朝鲜最后一位国王高宗为止. 下面来看一下正祖《日省录》中1783年2月19日的记录.

"依下教, 以昭容宫嫔号事, 往问于左议政李福源、右议政金熤, 则以为哲字、泰字、裕字、兴字、绥字似好, 而不敢指一仰对云矣. 教以, 以宜字为之."

正祖向大臣们询问赐予当时昭容宫的宜嫔成氏的嫔号, 除了大臣们带来的五个字, 选择自己定的'宜'字作为嫔号. 《衣袖红镶边》中将赐予宜嫔成氏嫔号的场面赋予了电视剧性的想象力. 正祖亲自挑选嫔号的宜嫔成氏的本名是成德任. 《衣袖红镶边》中也以成德任的名字出现.

过去《李祘》这部电视剧以成松渊的名字登场, 但这是虚构的设定. 正祖和宜嫔成氏的故事之所以在当今的大众文化中备受关注, 是因为二人的爱情故事非常有名. 大致可以从两个方面来考察, 第一个是两次拒绝正祖临幸的故事, 第二个是宜嫔成氏死后正祖留下的〈御制宜嫔墓志铭〉.

据说宜嫔成氏与正祖的母亲惠庆宫洪氏家族有所渊源, 是惠庆宫洪氏收养的. 正祖在世子时期的1766年, 想临幸宜嫔成氏, 但宜嫔成氏拒绝说, 作为正祖夫人的世子妃还没有子嗣, 所以自己不能承恩. 这里的'承恩'是指臣子从国王那里得到的恩惠, 也指宫女被国王临幸成为后宫. 十五年后登上王位的正祖又想临幸宜嫔成氏. 据说当时宜嫔成氏拒绝了正祖的临幸,

正祖降罪于宜嫔的仆人后，宜嫔才接受了临幸. 据悉，宜嫔成氏与正祖的王妃孝懿王后也有很深的交情. 所以宜嫔成氏才说，孝懿王后没有生育儿女，所以自己不能成为后宫. 只是，孝懿王后虽然与正祖关系很好，却没有生育子嗣. 宜嫔成氏生于1753年，第一次被正祖临幸是十五六岁，第二次被临幸是韩国年龄30岁的时候. 考虑到当时是朝鲜时代，可以说是在很晚的年纪成为了后宫. 宜嫔成氏于1782年生下儿子文孝世子，1784年生下女儿. 但是文孝世子因麻疹小小年纪就夭折了，女儿也在出生后不久死亡. 而且宜嫔成氏在儿子去世后不久，就以怀孕的状态死亡了. 15年来拒绝正祖的临幸，承恩不到4年就去世了. 在此期间经历了三次怀孕，还失去了所有出生的子女.

宜嫔成氏的确切死因不详，关于她的死亡也有很多说法. 正祖对宜嫔成姓氏的去世感到非常悲伤. 正祖撰写的宜嫔成氏的墓志铭〈御制宜嫔墓志铭〉中流露出了正祖的依恋之情. 在朝鲜时代，为配偶写碑文是不多见的. 尽管如此，正祖还是为死去的宜嫔成氏撰写了很长的文章，甚至详细说明了拒绝自己赐予的承恩的故事. 特别提到“处宫闱二十有馀年”，这意味着从第一次承恩开始. 还谈到了宜宾姓氏的品性. “若嫔者出自寒微，不资师承，小星之女，归妹之娣，初未学而知之，”‘内殿’指的是孝懿王后. “而若其为内殿之苦心血忱，神祗可质也，金石可透也.”

除此之外，还留下了为宜嫔成氏撰写的祭文〈御制宜嫔致祭祭文〉，还有每次祭祀时撰写的〈御制祭祝文〉.

在电视剧《衣袖红镶边》中，李祘在德任死后没有提及她，后来遇到了德任的朋友庆熙，爆发了感情. 直到那时才说道：“这是我的嫔妃，是我的人. 无论岁月如何流逝，都是我的，绝对不会让给其他任何人”，展现出没有忘记德任. 在《衣袖红镶边》的最后一集中，李祘死后，随即在二人年轻时见面的空间中，与等待李祘的德任重逢，以此结束了.

首尔市龙山区孝昌洞有‘孝昌公园’. 孝昌公园是宜嫔成氏和文孝世子的坟墓所在地. 正祖将二人的墓地安放在汉阳都城附近，取名为孝昌，意为孝诚繁盛. 此地在日帝强占期被开发为游乐园，宜嫔成氏和文孝世子的坟墓被移葬至京畿道高阳市的西三陵. 现在孝昌公园里有独立功臣白凡金九的墓地、李奉昌、尹奉吉、白贞基义士的墓地. 另一边还有曾在临时政府工作的李东宁、曹成焕、车利锡的墓地.

【참고문헌】

- 공공누리
- 전통문화포털

- 한국영화데이터베이스 KMDB
- 한국학중앙연구원 디지털인문학연구소
- MBC
- SBS
- tvN

5차시 오늘날의 창덕궁과 창경궁

학습 목표

- 오늘날 창덕궁과 창경궁의 모습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各位，本课时我们一起来欣赏一下今天的昌德宫和昌庆宫的美丽.

朝鲜时代有景福宫、庆运宫又称德寿宫、庆熙宫、昌德宫、昌庆宫5座宫殿. 昌德宫和昌庆宫并排而立. 在这张地图上也能看到其位置. 朝鲜时代的宫殿都很漂亮，但由昌德宫、昌庆宫和后苑组成的东阙区域尤其美丽. 昌德宫是之前介绍的五座宫殿中唯一被列入联合国教科文组织世界遗产名录的宫殿. 沿着经由敦化门-锦川桥-阙内各司-仁政殿-宣政殿-熙政堂-大造殿-乐善斋的路线，可以参观昌德宫，一个小时左右就可以全部参观完.

敦化门是昌德宫的正门. 由2层结构构成，是宫殿大门中规模最大的. 1412年，朝鲜第3代国王太宗建立了敦化门，壬辰倭乱时被全部被烧毁，1609年重建. 建造敦化门时，宗庙就在前面，所以将宫阙的入口定在了宫殿的西南侧. 阙内各司是辅佐国王和王室的阙内官厅，聚集了近距离侍奉国王的多个官厅，结构非常复杂. 现在我们看到的不是朝鲜时代建造的建筑，而是在2000年代初期复原的日帝时期被拆毁的建筑.

接下来是锦川桥. 锦川桥是建在昌德宫明堂水禁川上的石桥. 1411年，太宗建造了此桥，一直维持着建造时的样子. 也是目前首尔最古老的石桥.

仁政殿是昌德宫的中心建筑. 这里是举行国家重要仪式的地方，例如国王的登基仪式、大臣们的贺礼仪式、以及接见外国使臣等. 虽然从外面看是2层建筑，但实际上内部是单层建筑. 1405年太宗建造，壬辰倭乱时被烧毁，1610年、1803年复原. 此外，电灯、窗帘、玻璃窗、地板等都是1908年按照西式改造的.

接下来是宣政殿，曾被用作国王的办公室. 壬辰倭乱时被烧毁，1647年仁祖进行了重建，是宫殿内唯一保留下来的青瓦建筑. 熙政堂原本是君王就寝的寝殿，后来变成了偏殿，即君王平时生活的空间. 现在的熙政堂是在1917年被烧毁后1920年复原，是将位于景福宫的康宁殿搬来的. 因此与原来的熙政堂有所差异. 现在的熙政堂内部是1920年复原时按照西式装修的. 大造殿作为昌德宫的正式寝宫，是王妃的生活空间. 和熙政堂一样，1917年被火烧毁后

1920年复原，是将景福宫的寝宫-交泰殿搬来建造而成的. 与熙政堂一样，内部是西式的.

乐善斋是宪宗建造的建筑， 是宪宗的书房兼厢房. 宪宗为后宫庆嫔金氏建造建筑的同时一并建造了乐善斋. 乐善斋虽然位于宫殿内，但没有描绘丹青，非常朴素，1945年解放后也是王族居住的地方.

昌德宫的后苑展现了韩国代表性的传统庭院，保留了自然地形，种下了花和树木，建造了莲池后布置了建筑. 那么一起来看一下展现后苑的面貌的视频.

接下来看一下昌庆宫的主要建筑. 弘化门是昌庆宫的正门. 1484年成宗时期建成的，壬辰倭乱时被烧毁，1616年重新建成. 和昌德宫的正门敦化门一样，是2层形态的楼阁. 接下来是明政殿. 明政殿是昌庆宫的中心建筑，与昌德宫的仁政殿功能相同. 这里是举行国家正式活动的地方. 接下来的文政殿是昌庆宫的偏殿和办公室. 昌庆宫的弘化门和明政殿，即主建筑是朝东的，而文政殿是朝南的，与明政殿的方向不同. 这是在其他宫殿中难以找到的独特特征.

崇文堂和涵仁亭是国王和臣子一起讨论政治和学问的地方. 据推测，崇文堂建于光海君时期，于1830年被火烧毁，同年秋天重建. 这也是留有英祖亲笔匾额的建筑. 涵仁亭作为位于崇文堂前的建筑，是建于1633年的亭子. 景春殿、欢庆殿、通明殿、养和堂是用作寝殿的建筑. 景春殿是大妃、王妃、世子妃经常使用的， 欢庆殿可能是国王或世子使用的. 通明殿多用作王妃的寝宫，养和堂作为内殿的接待场所. 现在所说的建筑都是1834年重建的.

迎春轩也被用作后宫的居所. 在集福轩，思悼世子和纯祖出生了. 此外，虽然宫中也有女性住所聚集的空间，但所有建筑都因日帝而消失，只剩下了遗址.

昌庆宫还有一个叫做春塘池的莲池， 从朝鲜王朝时期开始就有的莲池是现有莲池很小的一部分. 莲池宽广的部分是日帝扩建的，原本是君王务农的稻田. 君王亲自务农是不是很惊讶呢？通过展现朝鲜时代国王和王妃亲自从事作为国家基础产业的农业， 不仅有祈祷农业丰收的意义，还具有展现主导农事的象征性意义.

观德亭是射箭的亭子. 是建于1642年的建筑， 前面宽阔的地基被用作军事训练场和武科考场. 风景也很美吧. 也流传下来很多吟咏枫叶之美的诗作. 昌庆宫和昌德宫是非常美丽的空间，非常适合散步. 希望大家有机会一定要来参观一下.

【참고문헌】

- 국가문화유산포털
- 서울역사아카이브

-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 문화유산채널
- 창덕궁관리소
- 한국관광공사